定慧社

불기 2552년 여름 | 제37호

송광사 전통강원

조계의 물소리

업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흐름에 함몰되어 흐름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떨치려 하면 할수록 점점 밀착하는 이 업의 세련된 기술 앞에 참 많이도 좌절하고 많이도 분노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도 언제나 두려움은 먼저 와서 우리를 접수하고 여인에 대해 헐떡이고 싶지 않아도 언제나 헐떡임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동공을 확대시키며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은 자기멸시나 자기환멸을 불러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면초가라고나 할까요. 자신을 사랑했다가 증오했다가 당당했다가 초라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이 뽑아낸 실에 자신이 옴짝달싹 못하고 갇히듯이. 악도에 떨어지면 그 절망이 얼마나 더 심할까요. 움직임이 생각함이 극심한 고통으로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때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솔깃해지기 시작하며 조금씩 그 진실됨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었던 이 황량한 영혼에 신심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보물을 발견했다는 행복함과 함께. 부처님 말씀은 너무나 흔한데 절박함이 비로소 보물을 보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항상 고통이 100% 차야 그때서야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고통에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누가 자신을 뒤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은 부처님이 우리를 법으로 이끌려고 우리에게 선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고통은 우리의 삿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해치려는 마음 밭에 상처와 절규가 결실을 맺습니다. 삿된 생각이 없다면 고통은 실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니! 너무 간단해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수학문제를 친구가 아무 반응 없이 풀 때 느끼는 어안이 벙벙함이랄까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삿된 생각들과 친구하며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부끄러움도 듭니다. 삿된 생각이 삿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양심이 있어봐야 사는 데 불편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양심이 바로 삿된 생각을 삿된 생각으로 바르게 판단하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불편해서 심판을 쫓아낸 것도 모르고. 심판이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면 알아서 나가 주는데 말입니다.

고통은 실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심판할 필요가 없어지면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제 삿된 생각을 대입하면 도출되는 함수 문제의 풀이과정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으며 삿된 생각은 삿된 생각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삿된 생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삿된 생각과 고통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심판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함수의 방정식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 방정식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표현해내지 못할 업은 없습니다. 업도 이제 업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삿된 생각을 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방정식임이 드러나고 언제 어디서나 할 것이 없습니다. 삿된 생각을 굴림 또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닦을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고통도 방정식임이 드러난다면 말입니다.

定慧社

불기 2552년 여름호 | 통권 제37호

2 **사진 속 이야기**

4 **방장스님 법어**

무자년 하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6 **교수논단**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도산

11 **기획연재2 - 송광사강원 역경**

선가귀감禪家龜鑑 | 용담

18 **특별기고**

부처님께 다시 듣는 사성제와 팔정도 | 시명

24 **지대방 이야기**

사집반 하안거 | 인산

성불의 門 | 덕제

오늘 본 아버지의 모습 | 송산

법고 | 선화

28 **정혜탐방**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

35 **경전 한 구절**

36 **학인기고**

제17대 카르마빠(Karmapa)의 채식주의 이념 /

육식에 대한 금식에 대한 법문 | 자용

50 **목우만평**

혜월스님의 문자 | 종안

52 **목우단상**

편지 | 서공

꽃 | 무등

출가의 인연 | 시묘

55 **바람소리 한 자락**

새벽 단상 | 해운, 그해 여름 | 심법

59 **詩가 있는 풍경**

봄바람 부는 날 | 종관, 자화상 | 도웅

고개 돌린 해바라기 | 창연

61 **학인논단**

大乘起信論의 一心二門三大에 나타난 緣起的 不二 | 도법

68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71 **대외활동 후원안내**

72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부처님과 보살님과 역대 조사스님께서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
나무 달마부중 강림법회
나무 승가부중 강림법회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일귀(강주)
편집인 | 덕현(입승)
편집장 | 시현
편 집 | 설산
사 진 | 정목

발행일 | 불기 2552년(서기 2008) 8월 6일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 화 | 061) 755-5302
인 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寺遊逸由屨頭志
佛淸疏自襲侵霓
何賦成釀香碧虹
山北地兄行坐守
髮南天弟雲獨孤
何江席雲經窓師
剃湖幕鶴花松羨

不負平生謗道流

- 虛應堂集 중에서-

법명은 보우普雨. 법호는 나암懶庵. 당호 허응당虛應堂. 선사는 숭유억불 정책이 가장 확고했던 시기에 조선불교를 중흥하려 했던 순교자로 다시 평가받고 있다. 폐지되었던 선교양종을 부활시키고 승과고시를 다시 시행. 이를 통해 서산 · 사명당과 같은 인재를

어느 산 어느 절에서 머리를 깎았던가
인연 따라 사방곳곳을 오고 가며 시를 짓는구나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아 아무 걸림 없고
학을 아우삼고 구름을 형 삼아 자유를 빚어내는구나
꽃길을 따라 홀로 걸으니 향기가 산에까지 스며들고
고요히 창 밖 소나무를 보니 그 푸르름에 온 몸이 물드는구나
스승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간직한 저 무지개 같은 의지
평생을 저버리지 않고 진리의 흐름을 따라가리라.

발굴 하는 등 폐불 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으나 결국 제주로 유배되어 입적. 저술에 〈허응당집虛應堂集〉상하 2권, 〈나암잡저懶庵雜著〉, 〈수월도량공회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華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 〈권념요록勸念要錄〉 각 1권이 전해진다.

방장스님 법어

무자년戊子年 하안거 결제 법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放下着 莫妄想하라 卽是如來大圓覺이로다.

모두 다 놓아버리고 다른 생각내지 마라.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큰 깨달음이니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천육백년전二千六百年前에 벌써 대각大覺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사生死에 침륜沈淪하고 있으니 이번 여름 안거安居 중에

는 더욱 분발奮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조사古祖師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구정九鼎이라는 선사禪師가 계셨는데 중이 되려고 가서 스승의 말씀에 따라 솥을 아홉 번이나 아무 불평 없이 고쳐 걸었다는 스님인데 스승께서 즉심卽心이 불佛이라고 법문法門하시는 것을 듣고 짚새기불로 잘못 듣고 왜 짚새기가 부처인고, 하는 화두話頭를 열심히 참구參究해서 크게 깨달았다고 하니 화두話頭의 우열優劣에 상관이 없고 얼마나 어떻게 참구參究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此道不可有心求요　亦不可以無心得이라
一箭石虎見亦血하야사　方知父母未生前이로다.

이 공부는 유심으로도 안 되고 또한 무심으로도 안 된다.
한 화살에 돌호랑이를 쏘아서 붉은 피를 보아야만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장자拄杖子로 법상法床을 한 번 치고 하좌下座하시다.) 定慧社

교수논단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도산道山 | 강사스님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것을 그려낸다네.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없다네.
마음과 같이 부처도 그러하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다네.
그러므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아신다네.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부처님을 본 것이라네.

心如工畵師 畵種種五陰 一切世界中 無法而不造
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諸佛悉了知 一切從心轉 若能如是解 彼人見眞佛 《華嚴經》

이 세상에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병든 사람이 있고, 또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화목하면 좋을 텐데 왜 질병과 불화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 《華嚴經》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한다."고 가르친다. 즉 건강과 화목 그리고 질병과 불화가 모두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과 화목은 어떤 마음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며, 질병과 불화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비롯한 것일까? 이 사실을 바로 알고서 건강과 화목을 비롯케 하는 마음을 지닐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또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한다" 즉 一切唯心造의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네 집에 방문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일주일 동안 미국의 여러 명소를 구경시켜 드렸다. 일주일간 관광을 실컷 하신 경상도 할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었다. 그런데 며칠간 쉬고 나자 서서히 심심해지기 시작했다. 마침 이웃에 또래의 미국 할머니가 계셔서 말동무가 되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해 아쉬웠다. 그렇게 심심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이웃집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혹시 친구가 될 수 있을

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앉았다. 그런데 막상 앉고 보니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멋쩍은 상태로 한 10분이 지났다. 그 때 마침 언덕 저 너머에서 버스 한 대가 올라오자 경상도 할머니가 소리쳤다.

"왔데이(What day?)" 그러자 미국 할머니는 '무슨 요일이냐?'고 묻는 줄 알고서 마침 월요일인지라, "먼데이(Monday)"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경상도 할머니가 소리쳤다.

"버스데이(Birthday)" 미국 할머니는 축하한다며,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불렀다.

이 두 분은 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각자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 각자의 세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중생의 수만큼의 다양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가 하나의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각자가 지어온 업에 따라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의 일화 또한 세상이 空하여 마음 따라 펼쳐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두 친구가 길을 걷다가 장미 한 송이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한 친구가 말했다.

"와! 저 빨간 장미꽃 참 이쁘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하길,

"니는 눈도 없나? 저게 분홍색이지 어찌 빨간색이고?"

처음 친구가 다시 말하길,

"니 눈이 있나? 저게 빨간색이지, 무슨 분홍색이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다투었다. 그런데 사실 한 친구는 적색 색약인지라 빨간색을 지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에겐 분명히 분홍색으로 보인 것이다. 그들이 한참 다투고 있을 때, 지나가던 벌이 말을 거들었다.

"이 가련한 인간들아! 색깔이란 빛을 파장을 통해 구별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 인간들은 빛의 파장 가운데 가시광선 밖에 감지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자외선까지 감지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보는 색깔이 저 장미꽃의 진짜 색깔이야. 저 장미꽃은 무지개색이야."

그러자 지나가던 박쥐도 자기가 옳다고 소리쳤다.

"무슨 소리! 어두컴컴한 색이구만."

박쥐는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퇴화되어 밝다 어둡다 밖에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박쥐에겐 어두컴컴한색으로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저 장미꽃은 무슨 색일까? 빨간색일까, 분홍색일까, 무지개색일까, 어두컴컴한 색일까, 그것도 아니면 팔색조처럼 색이 수시로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색이 없는 것일까? 반야심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色卽是空'을 제시한다. 色이란 空한 것이다. 色이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떠나서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空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空卽是色, 즉 空한 가운데 보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연기하여 다양한 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친구의 마음에는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다른

친구의 마음에는 분홍색으로, 벌에게는 무지개색으로, 박쥐에게는 어두컴컴한 색으로 나타난 것이다. 색깔만이 아니다. 이 세상 전체가 空한지라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양한 세상이 펼쳐진다.

사실 밤하늘에 떠 있는 동일한 달일지라도 보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 보인다. 귀하게 키운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홀어머니가 바라보는 달은 자신의 심정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참으로 슬퍼 보인다. 반면에 사랑하는 연인이 신혼 첫날밤 호텔 테라스에 앉아서 바라보는 달은 매우 매혹적일 것이다. 또는 고된 업무에 지친 샐러리맨이 바라보는 달은 매우 무미건조하거나 지쳐 보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空하다.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아함경에서는 "선한 마음일 때 좋은 경계를 펼쳐지고, 악한 마음일 때 나쁜 경계가 펼쳐진다."고 설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의 일화를 통해 살펴보자.

원효 스님께서 의상 스님과 함께 중국으로 불법을 구하러 가던 중, 늦은 밤에 그만 소나기를 만나 급히 조그마한 동굴로 비를 피해 들어갔다. 원효스님은 피로에 지쳐서 금새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너무 목이 말라서 잠시 깨었다. 그리고 잠결에 어둠 속에서 사방으로 물을 찾다가 손끝에 바가지 하나가 잡히자 그 속에 든 물을 아주 달게 마셨다. 그리고는 아주 편안하게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 보니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해골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비위가 뒤집혀 배를 움켜쥐고 토하려 하였다. 그 때 홀연히 깨달음을 얻고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 현상이 멸한다."
(心生卽種種法生 心滅卽種種法滅)

새벽엔 몸을 편안케 해주었던 그 물이 아침엔 왜 갑자기 몸을 뒤틀리게 했을까? 새벽까지 깨끗했던 물이 그새 더러운 물로 변한 걸까? 아니다. 물이 바뀐 것이 아니다. 단지 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자 몸을 편안케 해주었던 물이 몸을 뒤틀리게 하는 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空하여 마음 따라 펼쳐진다. 그래서 매사에 '짜증난다'는 생각과 말을 자주 하면 주변이 온통 짜증나 보여서 짜증나는 일들이 더욱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다'는 생각과 말을 자주 하면 주변이 온통 감사히 여겨져서 감사한 일들이 더욱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자.

먼저 눈을 감고 냉장고에서 시큼한 레몬을 꺼내 칼로 2등분한 후 투명 유리컵에 레몬즙을 내보자. 그리고 그 시큼한 레몬즙을 한 번 마셔 보자. 어떠한가? 입에 침이 절로 고인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곧바로 우리의 몸으로 반영된다. 이번엔 최근에 자신을 짜증나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보자.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떠올려보자. 어떠한가? 저절로 인상이 써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번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을 떠올려보자. 어떠한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질병에 시달린다. 반면에 매사에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고 건강하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항상 주위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킨다. 반면에 매사에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이와 같은 一切唯心造의 진리를 알지 못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진리에 의해 거듭 태어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다.

4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은 매번 무릎이 아파 고생이었다. 그래서 한 날은 너무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아 갔다. 진단 결과는 퇴행성관절염이었다. 무릎을 연결하는 연골 부분에 문제가 생겨 다리뼈가 서로 마찰해서 생긴 통증이었다. 아무리 좋은 영양 주사를 맞아도 연골이 재생신되질 않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진통제로 겨우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전부였다. 몇 달이 지나자 이젠 진통제마저 통증을 감소시키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해졌다. 결국 병원에서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반신을 절단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편의 실직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하반신 절단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젊어서 남편을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불구의 몸이 되어야 하다니…."

그녀는 매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러다가 아는 절에 가서 스님께 신세 한탄을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스님은 알았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니, 그녀의 병은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다. 받들어야할 남편을 받들지 못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마음이 도리어 그녀의 몸을 주저앉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 스님은 그녀를 낫게 하는 방법으로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전에 남편을 원망했던 마음을 참회하고 남편의 장점을 찬탄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이의 부축을 받아 법당으로 갔다. 막상 부처님 앞에 앉으니 자신의 지난 모습들이 영화처럼 떠올랐다. 남편이 처음 실직했을 때, 남편을 위로해 주기는 커녕 도리어 남편을 무능력하다고 무시하고 냉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은 자신의 그런 무시와 냉대에 상처받아 매일을 술기운으로 보내야 했다. 남편이 그토록 나를 못살게 굴었던 것도 어쩌면 자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든 것은 못난 남편 때문이라고 항상 원망했었는데, 어쩌면 자신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남편에 대한 이해와 미안함으로 번져갔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 동안 당신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자, 이번에는 잊혀졌던 신혼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하면 한겨울 밤중에도 마다않고 달려가 사오던 예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여보, 미안해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나는 당신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당신한테 전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매번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으니, 정말 죄송해요. 절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펑펑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러자 아랫배에서 불기둥 같은 것이 올라오더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러고는 돌덩이가 막힌 것처럼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졌다. 그러자 남편의 잘한 일들이 샘솟듯이 기억났다. 친정에 잘 하던 일, 자신이 아플때 밤새 걱정하고 간호해 주던 일,

생일날 기쁘게 해 주던 일들, 이렇게 남편의 잘한 일들이 떠오르자 이젠 남편을 향한 감사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목이 메어가며 남편을 찬탄하고 또 감사해 했다. 3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그녀는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 법당을 나올 때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혼자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렇게 매일 감사의 기도를 3시간 이상씩 드렸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평소엔 항상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이 그 날은 멀쩡한 정신으로 직접 그녀를 위해 저녁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저녁을 다 먹고 나자 남편이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니가 내 때문에 고생이 많제? 내 이제 경비일이라도 할란다. 앞으로 니 호강은 못시켜 줘도 잘 할게. 많이 노력할게. 그 동안 미안했다. 용서해라."

그녀는 요 며칠 무릎이 안 아픈 것보다도 남편과의 화해를 더 감사해 했다. 남편과의 화해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아주 화목해졌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병원에 가 보니 의사 선생님이 놀란다.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무슨 주사를 맞았기에 이렇게 무릎 연골이 다시 생성됐냐?"고. 그녀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단지 남편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찬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것뿐이었다.

이처럼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空한지라 자신의 마음과 함께 연기한다. 그래서 짜증과 불만의 마음은 질병과 불화를 불러오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건강과 화목을 불러온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진리에 의해 거듭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가장 먼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 애쓰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감사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한 음식에도 감사한다.
그는 매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에겐 질병이나 불행이 찾아올 틈이 없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空한지라 마음 따라 펼쳐지나니,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한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매사에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定慧社

선가귀감禪家龜鑑

용담龍潭 | 사교

『선은 부처님의 마음, 교는 부처님의 말씀』
선가귀감은 서산 대사 청허淸虛 스님께서
후학들에게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인도해 주기 위하여 50여 종류의 경론과
조사의 어록에서 요긴한 대목을 간추리고
군데군데 설명과 송구頌句, 평석評釋 등을
곁들여 완성한 저술이다.
자성의 이치를 밝히고, 불조의 공덕과,
선과 교의 특징과 갈애, 공부 방법과
화두, 수행자의 마음가짐 등을 열거,
분별심을 쉬고 올바른 안목으로
수행의 경로를 제대로 찾아들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이 부분은 선가귀감 전체에서
전반부를 번역한 것이다.

1 有一物於此호대 **從本以來**로 **昭昭靈靈**하야 **不曾生不曾滅**이며 **名不得狀不得**이로다

여기 '한 것'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고 멸함이 없으며, 이름 지울 수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음이로다.

2 佛祖出世가 **無風起浪**이니라

부처와 조사가 세상에 출현하심이 마치 바람 없는데 물결 일어남과 같음이니라.

3 然이나 **法有多義**하고 **人有多機**하니 **不妨施設**이로다

그러나 법은 수많은 뜻이 있고, 사람도 나름대로 근기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음이로다.

4 强立種種名字하야 **或心或佛或衆生**이라하니 **不可守名而生解**어다 **當體便是**니 **動念卽乖**니라

억지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라 하지만 이름에 집착해 알음알이를 내지 말지어다. 當體가 곧 이것이라 망념을 일으키면 바로 어그러지리라.

5 世尊이 **三處傳心者**는 **爲禪旨**요 **一代所說者**는 **爲教門**이라 **故**로 **曰, 禪是佛心**이요 **教是佛語**니라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이 禪旨가 되고, 일생 동안 말씀하신 것은 敎門이 되었다. 그래서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니라.

6 是故로 **若人**이 **失之於口則拈花微笑**가 **皆是教迹**이요 **得之於心則世間麤言細語**가 **皆是教外別傳禪旨**니라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입에서 잃으면 염화미소가 모두 교의 자취가 되고, 마음에서 얻으면 세간의 온갖 소리들이라도 다 敎 밖에 전한 선지가 되리라.

7 吾有一言하니 **絕慮忘緣**하고 **兀然無事坐**하니 **春來草自靑**이로다

내가 한마디 하노니, 생각을 끊고 반연을 잊고, 올연히 아무 일 없이 앉았는데, 봄이 오니 풀이 저절로 푸르네.

8 教門에는 **惟傳一心法**하고 **禪門**에는 **惟傳見性法**하니라

교문에는 오직 일심 법을 전하고, 선문에는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하였느니라.

9 然이나 **諸佛說經**은 **先分別諸法**하고 **後說畢竟空**하시되 **祖師示句**는 **迹絕於意地**하고 **理顯於心源**이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은 먼저 모든 법을 분별해 보이고, 나중에 필경 공을 설하셨거니와, 조사께서 보이신 句는 자취가 생각에서 끊어지고, 이치가 心源에서 나타났느니라.

10 諸佛은 **說弓**하시고 **祖師**는 **說絃**하시니 **佛說無碍之法**은 **方歸一味**어니와 **拂此一味之迹**하야사 **方現祖師所示一心**이니 **故**로 **云, 庭前栢樹子話**는 **龍藏所未有底**라 하시니라

부처님은 활처럼 설하시고, 조사는 시위처럼 설하시니, 부처님은 걸림 없는 법은 바로 한맛에 돌아가지만, 이 한맛의 자취조차 털어내 버려야 비로소 조사가 보이신 일심이 나타난다 설하시니. 그래서 「뜰 앞의 잣나무」와 같은 화두는 용궁의 장경에도 없다고 하시니라.

11 故로 **學者**는 **先以如實言教**로 **委辨不變隨緣二義**가 **是自心之性相**이며 **頓悟漸修兩門**이 **是自行之始終然後**에 **放下教義**하고 **但將自心現前一念**하야 **參詳禪旨則必有所得**하리니 **所謂出身活路**니라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먼저 실다운 가르침으로써 「변치 않음」과 「인연을 따르는」 두 뜻이 곧 자심의 성품과 모양이며,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이 곧 실제로 수행할 처음과 끝임을 자세히 안 뒤에, 교의를 놓아버리고 다만 자기 마음의 현전한 일념으로 선의 지취를 참구한다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니 이른바 벗어나는 살 길이니라.

12 大抵學者는 **須叅活句**언정 **莫叅死句**어다

대저 배우는 이는 모름지기 활구를 참구할지언정, 사구를 참구해서는 안 될지어다.

13 凡本叅公案上에 **切心做工夫**하되 **如鷄抱卵**하며 **如猫捕鼠**하며 **如飢思食**하며 **如渴思水**하며 **如兒憶母**하면 **必有透徹之期**하리라

무릇 본인이 참구하는 공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 지어 가되 마치 닭이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잡듯, 배고픈 때 밥 생각하듯,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 아이가 엄마 그리듯 한다면 반드시 사무쳐 뚫을 기약이 있으리라.

14 參禪엔 須具三要니 **一**은 **有大信根**이요 **二**는 **有大憤志**요 **三**은 **有大疑情**이니 **苟闕其一**하면 **如折足之鼎**하야 **終成癈器**하리라

참선은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니, 첫째 큰 신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분발하는 뜻이 있어야 하며, 셋째 큰 의정을 내는 것이다. 참으로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리 부러진 솥과 같아 마침내 쓸모없는 물건이 되리라.

15 日用應緣處에 **只擧狗子無佛性話**하야 **擧來擧去**하며 **疑來疑去**에 **覺得沒理路**하며 **沒義路**하며 **沒滋味**하야 **心頭熱悶時**가 **便是當人**의 **放身命處**며 **亦是成佛作祖底基本也**니라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만 「어째서 개가 불성이 없다고 하였을까」라고 한 화두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여, 이치의 길도 의리의 길도 다 끊어져 아무런 재미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여 어찌할 줄 모를 때가 곧 그 사람이 목숨을 던질 곳이며 또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터전이 되는 것이니라(생사를 대적하려면 반드시 이 한 생각을 폭파해 깨트려 버려야만 비로소 생사를 마칠 수 있다).

16 話頭를 **不得擧起處**에 **承當**하며 **不得思量卜度**하며 **又不得將迷待悟**하고 **就不可思量處**하야 **思量**하면 **心無所之**에 **如老鼠入牛角**하야 **便見倒斷也**하리라 **又尋常**에 **計較安排底**도 **是識情**이며 **隨生死遷流底**도 **是識情**이며 **怕怖憧惶底**도 **是識情**이어늘 **今人**이 **不知是病**하고 **只管在裡許**하야 **頭出頭沒**하나니라

화두는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 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며, 또 미함을 가지고 알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니, 생각이 미칠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이 더 갈 곳이 없어 마치 늙은 쥐가 쇠뿔에 들어가다 잡히듯 함을 볼 것이다.

평소에 이런가, 저런가 따지고 맞춰 보는 것이 곧 식정妄念이며, 생사를 따라 옮겨 다니는 것도 식정이며, 두려워 갈팡질팡하는 것도 곧 식정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병통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 속에서 빠졌다 솟아났다 할 뿐이니라.

17 此事는 **如蚊子**가 **上鐵牛**하야 **更不問如何若何**하고 **下嘴不得處**에 **棄命一攢**하야 **和身透入**이니라

이 일은 마치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들듯이, 다시 이러니 저러니 따질 것 없이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 놓고 한 번 뚫어 보면, 온 몸 송두리째 사무쳐 들어갈 때가 있으리라.

18 工夫는 **如調絃之法**하야 **緊緩**을 **得其中**이니 **勤則近執着**하고 **忘則落無明**하리니 **惺惺歷歷**하고 **密密綿綿**이니라

공부는 마치 거문고 줄을 고를 때 팽팽하고 느슨함이 알맞아야 하듯 너무 애쓰면 집착에 빠지기 쉽고 잊어버리면 무명에 떨어지게 된다. 또렷하고 분명하면서 세밀하고 끊임이 없어야 하느니라(줄의 느슨하고 팽팽함이 알맞은 뒤라야 아름다운 소리가 잘 난다).

19 工夫가 **到行不知行**하며 **坐不知坐**하면 **當此之時**하야 **八萬四千魔軍**이 **在六根門頭伺候**라가 **隨心生設**하나니 **心若不起**하면 **爭如之何**리요

공부가 걸어가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게 되면, 이때를 당해서 팔만 사천 마군의 무리가 육근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마음을 따라 온갖 계책을 꾸며 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다툼이 있으리오.

20 起心은 是天魔요 不起心은 是陰魔요 或起或不起는 是煩惱魔니 然이나 我正法中엔 本無如是事니라

일어나는 마음을 천마라 하고 일어나지 않음을 음마라 하며, 혹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번뇌마라 하거니와, 그러나 우리 정법 가운데는 본래 이 같은 일이 없느니라.

21 工夫가 若打成一片하면 則縱今生에 透不得이라도 眼光落地之時에 不爲惡業所牽하리라

공부가 만약 한 조각을 이룬다면 비록 금생에 사무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을 때 악업에 끌리지 않을 것이니라.

22 大抵參禪者는 還知四恩이 深厚麽아 還知四大醜身이 念念衰朽麽아 還知人命이 在呼吸麽아 生來値遇佛祖麽아 及聞無上法하고 生希有心麽아 不離僧堂하고 守節麽아 不與隣單으로 雜話麽아 切忌鼓扇是非麽아 話頭가 十二時中에 明明不昧麽아 對人接話時에 無間斷麽아 見聞覺知時에 打成一片麽아 返觀自己하야 捉敗佛祖麽아 今生에 決定續佛慧命麽아 起坐便宜時에 還思地獄苦麽아 此一報身이 定脫輪廻麽아 當八風境하야 心不動麽아 此是參禪人의 日用中點檢底道理니 古人云, 此身不向今生度하면 更待何生度此身고 하시니라

참선하는 이들이 언제나 염두에 두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네 가지 은혜가 매우 깊은 줄 아는지, 사대의 인연으로 모인 이 몸뚱이가 순간순간 쇠잔해 사그라져 감을 아는지, 사람의 목숨이 오직 호흡하는 순간에 달린 것을 아는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 같은 분을 만나고서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또한 위없는 법을 듣고서도 기쁘고 다행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지 않았는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수행인다운 절개를 지키는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며 지내지 않는지, 분주히 시비를 일삼고 있지나 않은지, 화두가 어느 때나 똑똑히 들리고 있는지, 남과 이야기할 때도 화두가 끊임없이 들리는지, 보고 듣고 알아차릴 때도 한결 같은지, 제 공부를 돌아보아 불조를 붙잡을 만한지, 금생에 결정코 부처님의 혜명을 이을 수 있는지, 앉고 눕고 편안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지,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자신이 있는지, 팔풍이 불어올 때에도 마음이 한결같아 움직이지 않는지」

이것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때때로 점검해야 할 도리로서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이 몸 금생에 건지지 못하면 다시 어느 세상에서 건지랴."고 하시었다.

23 覺語之輩는 說時似悟나 對境還迷하나니 所謂言行이 相違者也로다

말만 즐겨 배우는 이들은 말할 때는 아는 듯 하다가도 경계에 당하면 도리어 미해 버리니,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상반된 자로다.

24 若欲敵生死인댄 須得這一念子를 爆地一破하야사 方了得生死하리라

만일 생사를 대적하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탁 깨뜨려야만 비로소 생사를 요달하리라.

25 然이나 一念子를 爆地一破然後에 須訪明師하야 決擇正眼이니라

그러나 한 생각을 깨친 뒤에는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 눈이 바른가를 결택 받아야 하느니라.

26 古德이 云, 只貴子眼正이언정 不貴汝行履處라 하시니라

옛 어른이 이르시기를 「다만 자네의 눈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지언정, 자네의 행실은 귀히 여기지 않노라」 하시니라.

27 願諸道者는 深信自心하야 不自屈不自高니라

바라건대 공부하는 이들은 깊이 자기의 마음을 믿어, 스스로 굽히지도 높이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28 迷心修道하면 但助無明이니라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은 단지 무명만 도와 줄 뿐이니라.

29 修行之要는 但盡凡情이언정 別無聖解니라

수행의 핵심은 다만 범부의 생각이 다할지언정, 달리 성인의 알음알이가 없는 것이니라.

30 不用捨衆生心이요 但莫染汚自性하라 求正法이 是邪니라

중생의 마음을 버리려 하지 말고 다만 자성을 더럽히지 말라. 바른 법을 구하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것이니라(버리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다 더럽히는 일이다).

31 斷煩惱가 名二乘이요 煩惱不生이 名大涅槃이니라

번뇌를 끊는 것은 이승이요, 번뇌가 나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니라.

32 須虛懷自照하야 信一念緣起無生이니라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비춰보아야,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남이 없는 줄 믿어야 하느니라.

33 諦觀殺盜婬妄이 從一心上起하라 當處便寂이라 何須更斷이리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관하라. 그 일어나는 당처가 바로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으리요.

34 知幻卽離라 不作方便니요 離幻卽覺이라 亦無漸次니라

환인 줄 알면 곧 여의어 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 환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라 또한 점차 닦아 갈 것도 없느니라.

35 衆生이 於無生中에 妄見生死涅槃이 如見空花起滅이니라

중생이 나는 것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이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이, 마치 허공에서 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36 菩薩이 度衆生入滅度나 又實無衆生이 得滅度니라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실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37 理雖頓悟나 事非頓除니라

이치는 비록 단박에 깨칠 수 있으나, 사상事象은 몰록 다스려지지 않느니라.

38 帶婬修禪은 如蒸沙作飯이요 帶殺修禪은 如塞耳叫聲이요 帶偷修禪은 如漏巵求滿이요 帶妄修禪은 如刻糞爲香이니 縱有多智라도 皆成魔道니라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며,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으니,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다 마의 길을 이루리라.

39 無德之人은 不依佛戒하며 佛護三業하고 放逸懈怠하며 輕慢他人하며 較量是非로 而爲根本하나니라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않으며 삼업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놀아 게을리 지내며 남을 업신 여기며 따지고 시비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40 若不持戒면 尙不得疥癩野干之身이온 況淸淨菩提果를 可冀乎아

만약 계를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비루먹은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하거든, 하물며 청정한 보리과를 바랄 수 있으리오.

41 欲脫生死인댄 先斷貪欲과 及諸愛渴이니라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과 애갈을 끊어야 하느니라.

42 無碍淸淨慧가 皆因禪定生이니라

걸림 없는 청정한 지혜는 다 선정에서 나오느니라.

43 心이 在定則能知世間生滅諸相하나니라

마음이 정에 들면, 세간의 생멸하는 모든 일을 훤히 알 수 있느니라.

44 見境心不起가 名不生이요 不生이 名無念이요 無念이 名解脫이니라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나지 않는다고 이름하고, 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하며, 무념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45 修道證滅은 是亦非眞也요 心法이 本寂하야사 乃眞滅也라 故로 曰, 諸法從本來로 常自寂滅相이라 하시니라

도를 닦아 열반을 증득함은 이것은 또한 진리가 아니요, 심법이 본래 고요하여서 그것이 참 열반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라」 하시니라.

46 貧人이 來乞이어든 隨分施與하라 同體大悲가 是眞布施니라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을 따라 나누어 주라. 한 몸 같이 두루 어여삐 여기는 것이 참 보시니라.

47 有人이 來害어든 當自攝心하야 勿生瞋恨하라 一念瞋心起하면 百萬障門開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해롭게 하거든 마땅히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 생각 성내는 데에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리니라.

48 若無忍行하면 **萬行不成**이니라

만약 참는 행이 없다면 만 가지 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49 守本眞心이 **第一精進**이니라

본바탕이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의 정진이니라.

50 持呪者는 **現業**은 **易制**라 **自行可違**어니와 **宿業**은 **難除**라 **必借神力**이니라

神呪을 외는 것은 금생에 지은 업은 다스리기 쉬워서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거니와, 전생에 지은 업은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비한 힘을 빌어야 하느니라.

51 禮拜者는 **敬也**며 **伏也**니 **慕敬眞性**하고 **屈伏無明**이니라

예배라 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며 굴복하는 것이니,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니라.

52 念佛者는 **在口曰誦**이요 **在心曰念**이니 **徒誦失念**하면 **於道無益**이니라

염불이란 입으로 하면 송불이요, 마음으로 하면 염불이니,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 데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53 五祖云, 守本眞心이 **勝念十方諸佛**이라 하시고 **六祖云, 常念他佛**하면 **佛免生死**라 **守我本心**이 **卽到彼岸**이니라 **又云, 佛向性中作**이요 **莫向身外求**니라 **又云, 迷人**은 **念佛求生**하고 **悟人**은 **自淨其心**이라 **又云, 大抵衆生**이 **悟心自度**요 **佛不能度衆生**云云하시니라

오조스님은 「자기의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하시고, 육조스님은 「항상 다른 부처님만 생각하면 부처는 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나의 본심을 지키는 것이 곧 피안에 이른다」 하시고, 또 이르기를 「부처는 자기 성품 가운데서 찾을 것이지,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하시며, 또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 세계에 나고자 하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 뿐이다」 하시고, 또 이르기를 「대저 중생이 마음을 깨쳐 스스로 건지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니라.

54 聽經은 **有經耳之緣**과 **隨喜之福**하니 **幻軀**는 **有盡**이나 **實行**은 **不亡**이니라

경을 듣는 것은 귀를 거친 인연에 따라 기뻐하는 복도 있게 되나니, 그림자 같은 이 몸은 없어질 때가 있으나, 진실한 행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55 看經을 **若不向自己上做工夫**하면 **雖看盡萬藏**이라도 **猶無益也**니라

경을 보는 것을 자기의 마음 속을 향하여 공부를 지어 가듯 하지 않으면, 비록 만권의 장경을 다 보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라. 定慧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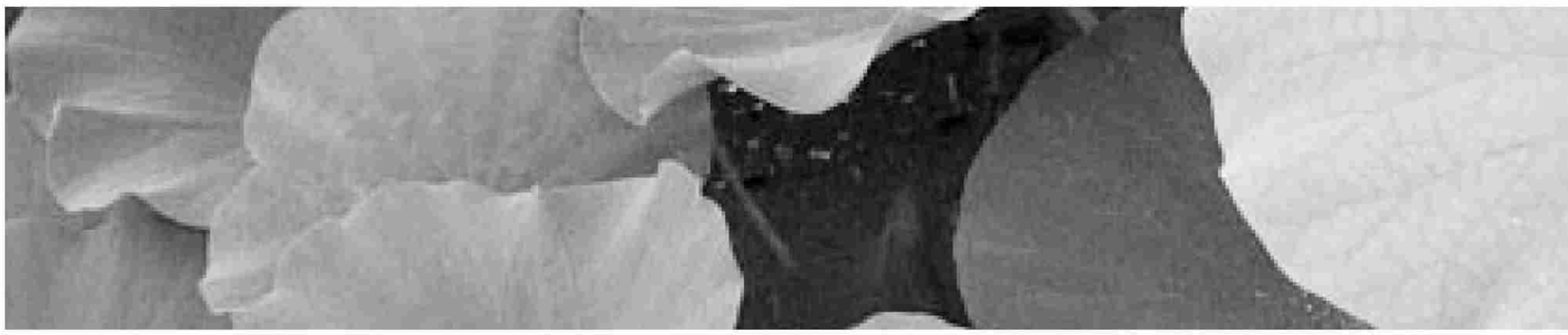
특별기고

부처님께 다시 듣는(?) 사성제와 팔정도

시명是明 | 대교

부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괴로움에 대한 발견과 소멸의 역사였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깨달음은 '닙바나' 라는 용어로 후대에 정리되었지만 그것 역시나 모든 고통의 근원인 '갈애의 완전한 꺼짐' 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갈애의 소멸은, 즉 깨달음의 내용은 '네 가지의 성스런 진리' 라 불리는 '사성제'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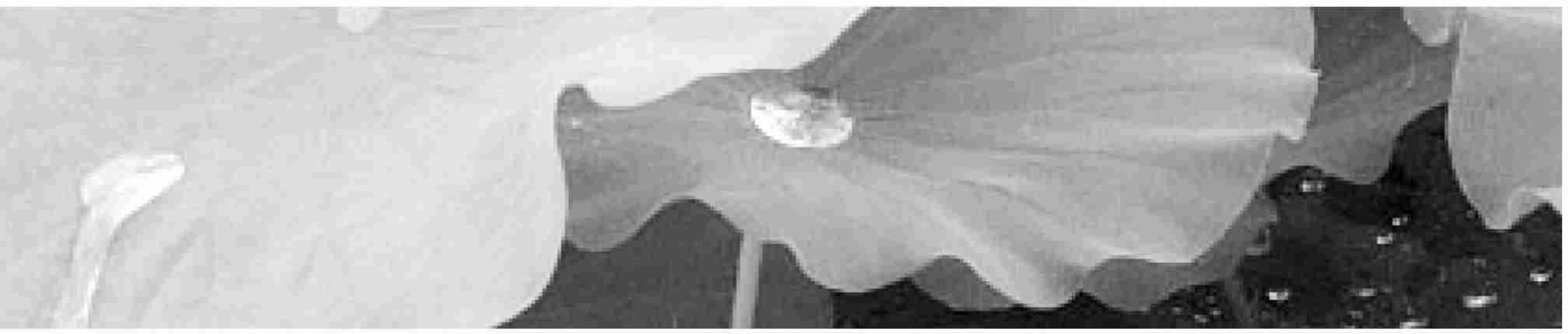
"나와 비구들이 긴 여정의 걸음을 같이 걸어온 것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하고 꿰뚫어 통찰하기 위해서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그것은 바로 사성제이다. 즉,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디까 나까야』 중에서

남방 상좌부 불교의 대표적 주석서인 『청정도론』을 집대성한 붓다고사 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성제의 이해와 팔정도의 바른 실천, 또는 오온과 무상, 고, 무아와 12연기의 철견徹見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복잡다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법음法音들은 공통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괴로움에서 출발해서 괴로움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이해는 바로 이 '괴로움' 즉 고苦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의 귀한 진리는 이것이다. 탄생은 고통이며, 늙는 것도 고통이며, 병도 고통이며, 죽음도 고통이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간단히 말해서 다섯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이다." 『디까 나까야』 중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은 우선 '생로병사' 의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우주에는 '성주괴공' 이, 자연에는 '생주이멸' 이 있듯이 우리 일생에는 '생로병사' 라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생로병사를 간단히 압축해 본다면 '나고 죽는 문제' , 즉 '생사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고 죽는 문제' 를 부처님은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와 함께 태어나는 문제까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한 생의 삶을 통째로 고통의 카테고리에 넣어 버렸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선 고통에 대한 조금은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초기경에서 부처님은 고통의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처음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인 '고고성苦苦性' 입니다. 따귀를 맞는 것, 바늘에 찔리는 것, 남에게로부터 받는 중상모략, 모함 등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둘째는 모든 유의법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속성인 '무너지는' , 해체되는 고통인 '괴고성壞苦性' 입니다. 왜 즐거움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고통의 성질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온의 각각 요소들의 조건이 되어 '중중무진重重無盡' 으로 흘러갈 뿐인데 그 무상한 흐름 속에 '나다!' 라는 절대성을 부여하여 취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행고성行苦性' 이 생깁니다. 위의 세 가지 분류방식 중 우리의 관심은 바로 괴고성과 행고성에 있습니다. 이 둘에 들어있는 공통된 성질로써 위에서 언급한 고통의 속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변한다' 는 성질입니다. 한 순간도 멈춤 없이 변화하므로 완벽할 수 없고, 견고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드리워진 사실은 불안정성 그 자체입니다. 그 끝도 없는 무상無常의 찰나에는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의도성' 인 '상일주제성常日主制性' 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예측 불허의 위기일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 의도나 내 의지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순간순간은 그야말로 두려움이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님인 부처님은 이런 사실을 '폭류' 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거침없는 물살을 일으키며 흘러가는 저 폭류 속에서는 어느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거친 물결의 흐름에 온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 속에서는 실로 몸과 마음을 맡기고 쉴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발견했다손 치더라고 내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맡기고 쉼을 의지한 것들조차도 무상하게 천류하는 폭류 속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 염세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야말로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일생 중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너무 소소하여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것들부터 차마 두 번 다시는 떠올리기 조차 싫은 것까지 그 범주를 어림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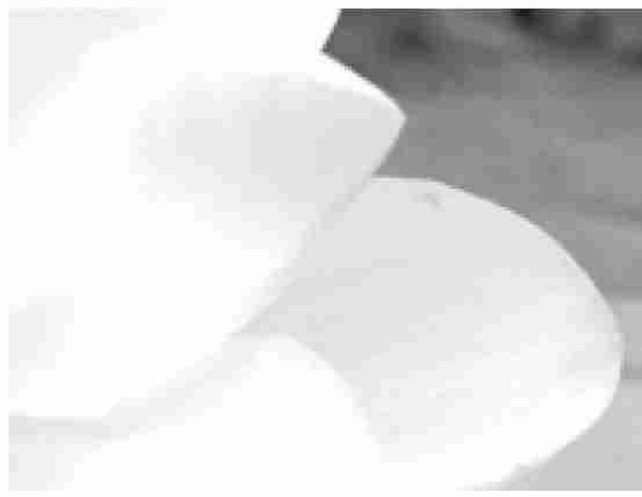
슬픔, 비탄, 아픔, 비통 그리고 절망. 이런 이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동안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해 왔습니까? 애써 외면해 버리거나 두려워 물러나 버리고 맞닥뜨리면 비켜서 버리기 일쑤가 아니었나요? 나와 나의 것들 주변에는 감히 근접조차 허락치 않고, 설령 잠깐 곁을 맴도는 낌새만 느껴져도 손사래 치며 어서 빨리 떨쳐내야 할 실로 환영받지 못한 불청객 취급을 해 온 건 아니었나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다반사를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을 찬밥대우 한들, 우리 한 생의 삶은 기쁨만큼의 고통이, 환희만큼의 절망이, 희열만큼의 좌절이 두서없이 뒤범벅된 한 편의 싸구려 신파극(?) 그 자체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수일과 심순애'를 한없이 괴롭히며 클라이맥스에서 관객들의 손수건을 흠씬 젖게 만들었던 '김중배' 처럼 이 고통이라는 노련한 배우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그가 맡은 바 배역을 너무나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할 때야말로 '고통은 진리이다'라고 천명한 우리의 스승과 '빨간 알몸'을 드러내고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 존재하고자 하며, 환희와 욕망에 묶여 있고, 여기저기서 쾌락의 추구를 위해 발버둥치는 '갈애'라는 요소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갈애를 '다시 태어남을 가져 오는 것', 또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성스러운 진리 중 두 번째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한역으로는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갈애'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소멸에 대한 고귀한 진리는 이것이다. 그것은 갈애의 완벽한 사라짐과 소멸이며, 그것(갈애)을 버리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며,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초월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사실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대명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로병사'로 대표되는 우리네 삶 그 자체가 고통이라면 그 삶을 받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내가 받기 싫다고, 태어나지 않겠다고 아무리 버티어 보았자 노 · 병 · 사와 마찬가지로 태어남 역시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계육도, 어느 한 곳에선가는 반드시 또 다른 생을 맞이하여 그 생의 맡은바 소임을 다 마쳐야한다는 필연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풀래야 풀 수 없는 딜레마인 '윤회의 굴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미궁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한역으로 '도성제'로 옮겨진 사성제의 네 번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서 또 다른 생을 받을 수 없는 그 절대의 무위법으로 인도하는 요소로서 '팔정도'가 고구 정녕히 설해졌던 것입니다. 성도 후, 다섯 비구에게 설하신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경』부터 입멸에 이르는 45년간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이 팔정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설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를 바로 이 팔정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 짓기도 하셨을 만큼 팔정도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수밧다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팔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 그러나 나의 법과 율에는 팔정도가 있다. 수밧다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불교교단)에만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대반열반경』 중에서*

그럼 도대체 여덟 가지의 진리는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초기 경에서는 정형구들로 여덟 가지 각각의 지분들을 분명하게 정의했지만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른 견해正見는 앞에서도 언급이 된 '사성제' 에 대한 지혜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가전련경』에서는 까짜야나 존자가 부처님께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지를 묻는 질문에 "까짜야나여!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두 극단에 따르지 않고 정중正中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을 설한다."라고 답하십니다. 초기경에서 말하는 정중正中이란 바로 '연기' 를 말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12연기의 순관과 역관' 을 '사성제의 통찰' 과 함께 바른 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성제와 12연기의 순관, 역관은 문자적인 표현만 달랐지 꼼꼼히 살펴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성제 중 '고집苦集' 은 12연기의 순관, 즉 '고의 발생'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멸도滅道' 는 역관, 즉 '고의 소멸'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둘은 내용상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체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바른 사유正思惟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출리심, 出離心)' 과 '악의 없음' 그리고 '해코지 하지 않음(不害)' 에 대한 사유로 정의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불자들이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항상 지녀야할 바른 생각을 말합니다. '감각적 욕망' 이란 육체에 집착하는 말초적이고 관능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財, 색色, 식食, 명名, 수睡' 로 대표되는 오욕락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의와 해코지' 는 그 근본 성질에 '성냄' 이라는 불선법不善法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분노, 적대감, 증오, 원망, 서운함, 시기, 질투, 짜증' 등 나와 직간접적으로 접해 있는 모든 경계에 대해 때로는 잔혹하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바른 말正語은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양설)' 을 삼가고 '욕설(악구)' 를 삼가고 '쓸 데 없는 말(기어)' 를 삼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네 가지 중 가장 강력한 불선업을 생산하는 것으로 '중상모략(양설)' 을 들고 있습니다. 중상하는 말은 한 사람을 다른 모임이나 사람으로부터 이간시키며 그 배후에는 경쟁자의 성공이나 덕망에 대한 질투나 증오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하는 말이 거짓말일 때는 더욱 강력한 악하고 불건전한 업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말(기어)' 는 '잡담' 이라고 풀어보면 쉽게 이해되리라 봅니다. 초기경인 『디가니까야(사문과경)』에서는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잡담으로 '왕 이야기, 노는 이야기, 연극 이야기' 등 27가지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행위正業는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몸으로 행하는 불건전한 행위(불선업)를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음행에 대해서는 재가와 출가로 나누어서 엄격히 말씀하셨는데, 재가 불자에게는 불사음不邪淫, 즉 삿된 음행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는데 목적은 부부간의 정절문제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계한 비구, 비구니는 '금욕'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잘못된 성적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성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숭고한 삶은 생각 그리고 말과 행위의 완벽한 정화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욕의 파도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正命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수단으로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라 정의하는데 이 역시 재가와 출가로 나누어 상세히 설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고통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을 재가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무기, 사람(노예나 매춘), 동물(도살과 정육점), 독약, 술이나 마약 거래'를 불건전한 생계 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출가자들에게는 세속에서 말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오로지 '탁발'에 의지할 것을 당부하셨으며, 특히 '사주관상, 점성술, 의료 행위' 등의 삿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키셨습니다. 어쨌거나, 출가 사문은 '탁발정신', 즉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정진正精進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不善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善法)들을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용을 써도 그것은 바른 정진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 입멸 후 부파불교 논사들은 '상좌부 아비담마'를 통해 52가지 심소법 중 '14가지 불선법'과 '25가지 선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서 택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바른 마음 챙김正念은 '몸, 느낌, 마음, 법(身受心法)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정의합니다. 불교역사에 있어 남방불교에서 전승되어 오는 여러 수행법은 모두 이 '바른 마음 챙김'을 특정 시대와 환경에 맞게 개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념처四念處 수행법으로 더욱 잘 알려진 이 방법은 초기불교의 수행법이 총망라된 『대념처경』을 통해서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바른 삼매正定는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 머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바른 삼매를 위한 명상주제를 40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명상주제를 나눈 이유는 수행자의 성향이나 기질이 각자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시체의 썩어 가는 과정을 열 가지로 나누어 집중대상으로 삼는 '부정관'은 탐욕이 강한 성향에게 어울리며, 특히 정욕이 강한 기질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40가지 명상 주제 중 불 · 법 · 승 삼보에 관한 명상은 믿음이 약한 타입의 수행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한역으로 옮겨진 자비관 수행의 요체인 '사무량심四無量心'은 성냄이 많은 기질에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팔정도의 각각의 지분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덟 가지 성분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낱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혜戒定慧' 라는 세 가지 묶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탄탄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바른 견해' 와 '바른 사유' 는 행동과 말에 뚜렷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빤냐' , 즉 지혜慧는 계戒의 요소들인 '올바른 말' , '올바른 행동' , '올바른 생활' 에 선행합니다. '계戒' 를 통해 성적 충동이나 몸의 혹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는 완전한 조화 속에서 협동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관심은 통찰력을 계발하기 위한 마지막 묶음인 '올바른 노력' 과 '올바른 마음 챙김' , 그리고 '올바른 집중' 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묶음인 집중(定)을 통해 획득됩니다. 여기 우리의 신체로 '계정혜戒定慧' 를 설명하는 재미난 비유가 있습니다. 머리는 정서를 관장하는 부분, '혜慧' 로서 몸은 감각을 잘 억제해야 할 '계戒' 로서, 마지막으로 안정되고 평온함의 정서는 가슴에 비유하여 '정定' 으로 각각 표현되고 있습니다. 머리, 몸, 가슴 이 셋은 깨달음을 위해 통합되고 있고 함께 작용하며, 삼각대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을 지배하거나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이 절대적인 이유는 '무상, 고, 무아' 를 철견하게 하는 지혜인 '통찰지' 를 드러내는 필요충분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이 치달려 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짓는 자여! 마침내 그대는 보아졌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서까래는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업 형성을 멈추었고 갈애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법구경』 153-154

위의 경구에서 보듯이 수행의 최종 목표는 업 형성을 멈추고 갈애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수행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현생의 선업을 통해 다음 생의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식의 유치한 업 놀음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현실은 최종목표에 이르는 방법론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인 '사성제' , '팔정도' 와 같은 금구金句를 '초기 불교' 니 '원시 불교' 운운해 가면서 고루한 사상쯤으로 퇴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출가한 행자들이나 불교지식이 전무한 재가신도들에게나 일러 주는 극히 형식적인 것들로 경시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후대 논사들의 '학문을 위한 학문' 으로 전락해 버린, 현란한 법수들로 시작해서 과격한 자기식의 주장인 희론으로 끝나는 오도된 논리가 짐짓 심오한 것인 양 떠들어 댑니다. 또 내용도 알 수 없는 선문답에 고개를 끄덕여가며, 무대포식(?)으로 헛힘만 쓰는 것이 정진인 양 소중한 정력을 소진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깨닫게 됩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깨달음이란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고 사성제 중 마지막 지분인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성스러운 진리' 인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현생의 내 삶 속에서 당당히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승단의 무리' 라면, '승속의 일원' 이라면 골수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주좌와, 어묵동정, 대소변리, 착의끽반' 인 우리네 일상 매순간 순간이 '염세' 나 '낙관' 이 아닌 '사실' 과 '객관' 으로 내 속에서 활활 살아 숨 쉬는 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定慧社

*참고자료 : 월폴라 라훌라 스님이 쓰신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그리고 빅쿠 보디 스님이 쓰신 『팔정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팔정도의 각각의 지분 설명은 실상사 화엄학림에 계시는 각묵 스님의 기초불교 강좌에서 상당부분 인용하였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사집반 하안거

인산仁山 | 사집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다. 치문 때 첫 포살 후 대방 참회하고 사집 올라와 대방 참회하고 징한 스님들. 힘든데도 나가지도 않는다. 다양한 성격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 분포도. 이런 이유로 다들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드러날 듯 드러나지 않고 조용한 듯 조용하지 않다. 무난하고 별일 없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 아닌지 원. 다들 정도 많고 수행자답게 살려고 노력한다. 모난 도반스님께 경책보다는 기회와 이해, 자비를 베풀고 개인적인 문제를 도반스님들 전체가 같이하려고 한다. 강하게 보단 유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 사집반 스님들. 복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죽게 고생하고 울력도 많고 근데 아랫반은 적고 사집반 돼서도 반은 치문반 생활이다. 이런 까닭으로 요즘은 반 스님들이 투덜이가 되었다. 궁시렁 궁시렁 우이c 우이c 하면서도 모두들 자기 역할 자기 자리는 잘 지켜 할 것은 하는 스님들이다.

억지로 등 떠밀려 맡은 사집반장 소임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서로 안하려 해서 할 수 없이 맡긴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많이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도반스님들이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처음 소임을 맡고 의욕에 넘쳐서 너무 사소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삭막한 분위기로 몰아가 한동안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없는 규율과 제한을 만들려 했고 일종의 지시나 강요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주기를 바랬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말은 없어도 속은 깊고 이해심도 배려도 많은 도반 스님들을 너무 쉽고 함부로 했던 것이 미안스럽다. 너무 신경이 곤두서 예민했던 내게 충고로 다가와 준 사집반 우리 도반 스님들이 고맙다. 너무 잘하려 하고 너무 강하게 몰아붙여서 반감을 사게 했는데 그런 점을 다시 생각해 보라며 여유롭게 가자고 충고도 해주고 이제는 힘도 실어준다. 우리 사집반 스님들 어째든 고맙지만 불쌍타. 이래저래 중간에 끼어 고생이 많다. 定慧社

성불의 門

덕제德濟 | 사집

언제인가부터 무기력에 잠기곤 했다. 지금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내지는 나는 왜 하필이면 수많은 공간과 장소가 존재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 시간과 이 환경에 있느냐는 것이다. 분명히 자유가 있다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유롭지 못했다.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의 장난 같기도 하고 사람의 일생은 짜인 대로 예측되어 있다는 느낌이 생각에 생각으로 물렸다.

무엇일까?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중얼중얼 되뇌며 답을 찾던 중에 '그럼 난 무엇일까?' 란 바로 이 말에 찾던 출구는 고사하고 걸어왔던 입구마저 잃었으니 우물 안에 개구리 꼴이라면 적당하겠다. 그래도 난 복이 많은지 곁에는 수행하시는 스님이 계셔서 이런 물음이 생기곤 하면 즉시에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늘 시원치만은 않았다.

"출가하여 부처님 법을 배워라."라니 하고 싶은 게 많고 혈기왕성한 나에겐 너무 어려운 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용케도 목탁을 들고 부처님 앞에 답을 구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만법이 유심소조라, 만법귀일 일귀하처라는 이 하나는 참나 바로 마음이다. 나를 무기력에 빠지게 한 놈은 나였던 것이다.

이제 문은 찾았지만 아쉽게도 열리지 않는 문이다. 허나 세세생생 발심출가를 원으로 삼았다. 문이라는 것 그것은 통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꿈속에 취해있는 범부에서 나를 찾아 수행하는 중으로 한 단계 올라왔으니 부처가 되는 길은 머지않았을 것이다. 定慧社

오늘본 아버지의 모습

송산松山 | 치문

세속의 인연을 끊어낸 것을 출가라 하고 마음마저 애착에서 끊어낸 것을 사문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러 저러한 사연들을 뒤로 하고 출가를 결심했다.

"아버님! 어머님!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 자식은 세속에서 살아갈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라고 어렵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 드렸다. 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부모님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나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되었다. 폼 나게 대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 드릴걸 하는 생각도 교차했지만, 그런데 의외로 흔쾌히 허락하셨다. 사실 세속에서의 나의 삶은 좌충우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지 않고 뒤로 넘어가도 코가 깨지는 격으로 시작과 다른 끝을 맛보았다. 또한 종내는 부모, 혈육에게 까지도 본의 아닌 막대한 피해가 가게 되고 나 자신도 세상에 대한 배신, 원망 등 회의가 깊었다.

물론 지금은 전혀 세상의 구조에 대한 어떠한 편협한 마음도 없고, 미련도 없다. 부러움도, 그리움도 없다. 참고로 다 밝힐 수는 없으나 다양한 사회 구조 속의 계층을 다 맛보았다. 흔히 말하는 명예, 부, 권력, 빈곤, 불량아(?) 등.

참고로 나는 장손이다. 아버지가 2대 독자이시며 종손이다. 그래서 벌초는 매년 나의 몫으로 고정되어 있다. 나 혼자서 항상 산소 12자리를 한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강원에 들어오면서 전화 한통도 못했다.

죄 많은 자식으로 살아있는 생지옥 생활을 하도록 한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생각으로 마저도 요즘은 잊었나 봅니다. 마음으로라도 문안인사 여쭙고 걱정하던 것 마저 하안거 들어오면서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사시예불시 반야심경을 시작하려는 순간 '아! 아버님이 여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힘없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연로한 청신사가 어렵게 절을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아버님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게 되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못 드려도, 전화 한 통화 못해 드려도,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게 이 몸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를 마음속으로나마 하루 한 번 그려보지 못했음이 너무 한심스럽고 죄송스럽다. 그리고 요즘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재발심의 기회가 되었다. 아마도 나약해져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 노 청신사가 나타나신 것은 아닐까? 세속의 잣대를 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행을 닦고 닦아서 난장판에 있더라도 항상 여여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시던 인연 깊은 스님들의 채찍의 모습일까? 오늘 이런 기회에 소식 전합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고 항시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이 아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定慧社

법고

선화禪和 | 치문

송광사에서 행자 생활을 할 때부터 법고 소리를 좋아했다. 물론 다른 사물 소리도 좋지만 법고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몸에서 전율이 흘렀다. 그래서 나는 '강원에 가면 법고를 꼭 쳐야지' 라고 다짐을 했다.

타 강원에서는 법고 습의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송광사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법고 습의를 한다. 첫 법고 습의 날, 도반스님들과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수석정에 올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사집반 스님들이 오셨다. 먼저 종고장 스님께서 법고 채 잡는 방법, 법고 치는 요령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저희 송광사에서는 기본 박자가 강약약약 4박자고 처음 칠 때는 팔을 쫙 펴서 손목으로만 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두 손으로 모양을 그리고 하려면 손목이 잘 풀려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 먼저 기본자세로 쳐볼 테니 보시고 좌차대로 한 분씩 해보세요."라고 하셨다.

우리는 하나 둘 호기심을 갖고 치기 시작했는데 다들 처음인지라 박자도 이상하고 폼도 이상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었다. 연습용 법고 채를 잡고, 강약약약 치는 순간 기분이 묘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종고장 스님께서 "처음 치고는 잘 하는 겁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니 꾸준히 연습하세요."라고 하셨다. 순간 기분이 좋았다. 그 후로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수석정에 올라가 법고 연습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요일 법고 습의시간, 좌차별로 법고를 치고 있는데, "ㅇㅇ스님, ㅇㅇ스님, 선화스님 내일부터 종고루에 올라오세요."라고 하시는 거였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 서로 손을 꽉 잡고 흔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종고루에 올라갔다. 결과는 엉망이었다. 우리가 모두 시무룩하게 있으니 종고장 스님께서 "처음엔 다 그래요. 꾸준히 연습하시고 자주 올라오면 괜찮아져요."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수석정에 올라가 법고 연습을 했다.

날이 갈수록 기본 박자가 잘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교반 JS스님께서 종고루에 올라 오셨다. 법고를 치시는데 우리는 모두 멍하게 쳐다보았다. 너무 잘하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스님을 폭풍법고라 별명을 지었다. 나는 속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JS스님보다 더 잘 쳐야지' 라고 다짐하며 봄 산철동안 기본 박자만 꾸준히 쳤다.

방학 때 종고장 스님께 V자를 배워 하안거 들어와서 V자로 치고 한 손으로 원도 치고 있지만 아직 배울게 너무 많다. 모든 동작을 마스터해서 사교반이나 대교반 방학 때 만행을 하면서 법고를 쳐보는 게 소원이다. 그럴려면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CY스님, SM스님 우리 노력해서 같이 만행하며 법고 칩시다. 송광사 법고의 위력을 보여 줍시다. 定慧社

정혜탐방

부산 영주암 회주會主 정관正觀스님

부산 영주암에 갔다. 날은 무덥고 영주암 밑 오르막은 가파르게 나 있었다. 영주암 회주이신 정관 스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다. 절은 암자라 하기엔 상당히 컸다. 절 밑에 노인 복지관과 유치원이 있고 절 위로는 불교대학 건물과 다른 노인 복지관이 또 있었다. 비탈진 곳의 주택가를 생각하면 큰 규모다. 이곳도 여느 절과 다름없이 객비를 타러온 객스님이 그늘 가에 앉아 출타하신 주지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절 살림을 맡은 분들의 불편한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스님은 상당히 바쁘셨다. 사시 공양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러 출타하셨다 들어오자마자 외부 손님을 맞았고 그 뒤로도 한 명의 손님을 더 만난 뒤에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본래지 마음에 대해 알고 싶다 했다.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하고 본래지하고 차이점이 뭐야. 적자를 밝다고도 볼 수 있잖아. 본래부터 밝다. 제법부동본래적하고 이거하고 일치잖아 맞지.

○ 적자에 이미 '밝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 적자는 밝다는 뜻이라. 본래부터 밝다 그 뜻이라 적자를 어떻게 알고 있노.

○ 열반적정涅槃寂靜할 때 그 적자, 그러니까 사마타로 알고 있는데요.

열반적정이란 말은 본래지에는 원래 죽음이 없다 생사가 없다 그 뜻이거든. 항상 밝고 밝다는 뜻이거든.

○ 적자를 작용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자는 해석하려면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어 그리 해석하면 돼. 그러면서도 연을 만나면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연을 만나면 지옥도 되고 극락도 되고 그리 해석하면 돼.

○ 본래지 마음이 연을 만나기 이전의 생사가 없고 둘이 없는 인식 이전의 자리라 하셨는데 또 서장에 나오는 '냉난자지冷暖自知'의 자리가 또 본래지 자리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차갑고 따뜻함을 아는 것은 연을 만나 이미 인식한 거 아닙니까.

인식한 것은 업이라.

○ 근데 그 냉난자지의 자리를 탐구해 나가면 그 자리가 본래지 자리라 하셨는데요.

그래.

○ 연에 의해 생긴 인식이 업인데 어떻게 그게 본래지가 됩니까.

연을 누가 만들어냈노. 본래지가 연을 만들어낸 거 아이가.

○ 차고 따뜻하다는 인식을 스스로 아는 것은 본래지...

알 줄 아는, 그것은 본래지가 아는 것이고 차다는 것은 업이고 업인데 차다는 것을 알 줄 아는 차다는 것을 알 줄 아는 그게 주인공이야. 그게 본래지야.

○ (다판을 만지며) 찻상이 부드럽다고 느끼는 그게

찻상이 부드럽다고 느낄 줄 아는 주인공 그 자체가 체라 체.

○ 이해가 확실히 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지.

○ 안식, 이식, 비식 그게 다 식인데 그게 왜 본래진지

그게 이제 이 물(스님께서 마시는 차)이 따시거든. 따신 걸 아는 이거는 역으로 올라가면 언제부터 아노.

○ 태어나기 전부터 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 들어와 배워서 아느냐 스스로 아느냐.

○ 스스로 압니다.

배워서 아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알 지자 그거는 식이 아니라. 지혜지하고 알지하고 차이가 뭐야.

○ 알 지는 지식, 알음알이 지혜지는...

알 지는 연을 만나면 알 줄 알고 연 만나기 전에는 식이 아니라. 알 지자는 식이 아니라. 지혜지는 언제부터라?

○ 지혜지는 음. 철학을 통해서 아는 것 같습니다.

그건 노력해서 아는거지. 지혜지는 언제부터 지혜지는 언제부터지만 알 지는 본래부터 언제부터가 아니라. 이 물 먹어서 따신 줄 아는 이것은 연을 만나기 전에는 따신 줄도 모르고 찬 줄도 모르지만은 연을 만남으로서 따신 줄 알고 찬 줄 아니까 그러니까 따신 줄 알 줄 아는 이건 본래지다.

○ 연을 만나기 전에도 밝아 있었고 연을 만나도 연을 따라 따뜻하고 찬 줄 아는...

연을 만나기 전에도 본래부터 알고 있지만은 밝아 있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역시 감이 안 잡히지. 왜냐면 형체가 없으니까 반응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까는 깨어 있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밝아 있는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라.

○ 이미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까?

지나쳐 버린다기 보다도 이 물을 먹기 전에는 따신 줄 몰랐지만 먹어 보니까 따신 줄 아는 식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따신 줄 알 줄 아는 이것은 하늘 땅 이전에 본래부터다. 진리는 곧 하나다 그러잖아 진리는 불변이다 경에 늘 나오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하려면 그러면 이 물을 부처님이 내려와 먹으면 부처님이 뭐라 하겠어.

○ 따뜻하다.

부처님도 따뜻하다 그러지 딴 말 안 하지. 우리가 따신 줄 아는 거랑 부처님이 따신 줄 아는 거랑 차이가 뭐라.

○ 없습니다.

차이가 없지. 지구상의 백억 인구가 똑같잖아.

○ 예.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서 축생이 먹으면 뭐라겠노. 축생은 말은 안 하지만 축생도 물을 먹으면 느낀 대로 표시할 꺼 아니야. 따신 표정 하겠지.

○ 예.

축생보다 더 낮은 곤충 곤충도 이 물 먹으면 따신 줄 아는 느낌은 같지 다를 수 없지.

○ 예 조금은 차이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한데요.

따신 줄 아는 그거는 사람이나 부처님이나 축생이나 곤충이나 같애. 다를 수가 없어.

○ 예 그건 차이가 없네요.(따뜻한 느낌은 차이가 있지만 따뜻한 줄 아는 것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진리는 하나단 논리가 맞지.

○ 예.

또 그 다음에는 진리는 불변이다. 불변이다 하는 것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애기가 태어나서 이 물 먹으면

따신 줄 알 거 아니야. 그 애기가 커서 백살이 되면 다 변했잖아. 자기 몸도 다 변했고 강산이 열 번은 변했잖아 그지. 다 변했지만은 애기때 먹어서 따신 줄 아는 거나 애기가 커서 할배가 되어서 백살이 되었을 때 따신 줄 아는 거나 고 차이는 뭐야.

ㅇ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진리는 불변이단 말이 맞지.

ㅇ 예.

그래서 진리가 하나라는 말도 절대 잘못된 말 아니고 또 경에 늘 진리가 상주불변이란 말 하잖아.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본래지라. 진리는 본래부터다.

ㅇ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화를 낸다거나 괴로워 한다고 했을 때 화를 내고 괴로워 할 줄 아는 마음도 본래지 마음입니까.

거기서 인제 업하고 관계돼. 본래지가 터득이 된 사람은 화를 낸다 하더라도 적게 내. 업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화를 더 많이 내고 본래지 자리를 회복이 되면 화를 적게 내지. 낼 땐 낼 줄도 알지. 낼 땐 낼 줄도 알아야지. 내되 화 낸 거기에 자기가 말려 들어가지 않아. 상처를 안 받고 거기서 끝나버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도 있잖아. 업이 두터운 사람은 내 그게 그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는기라.

ㅇ '차다, 따뜻하다' 도 차다 알고 끝나버리고 따뜻하다 알고 끝나버리는 거네요.

알고 끝나버리지.

ㅇ 근데 자꾸 연연하니까...

연연하는 그게 업이라. 본래지는 연연 안해 끝나버려.

ㅇ 마음이 연연해 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습성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지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본래지로 이끌어 주기 위한 그 단계에 맞는 방편 같은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1)]

그걸 하려면 이제 습성지 마음에서 습성지 마음을 가지고는 안식자가 못 되잖아. 우리의 구경은 안식자잖아. 안식자가 되려면 습성지 마음에서 본래지 마음으로 회복이 되야 돼. 회복이 돼야지 지식지 가지고는 안식자가 될 수가 없다. 수학에 0하고 같애. 수학이 0에서 천 억 막 나가잖아. 천 억 나가는 게 고정이 아니잖아. 다시 또 0으로 돌아오잖아.

---

1) 우리들 마음은 네 부류가 있다. 본래지 마음, 습성지 마음, 지식지 마음, 지혜지 마음이 그것이다. 마음은 본래지에서 출발해서 본래지로 돌아오는 것이다. 본래지 마음은 태어나기 전부터 본래 있었던 대자연의 법이다. 그것은 연緣을 만나기 이전의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언어가 끊어진 절대자의 높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공空이다. 이 공이 연을 만나면 반응한다. 그래서 사실은 공이 아니고 공지空知이다. 가령 휘발유는 화력이 높고 강하지만 성냥의 '연' 이 닿기 전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 때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연을 만나면 즉각 반응한다. 왜냐하면 본래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법이다. 내가 있으므로 혹은 중생들이 있으므로 있는 법이 아니고 '나' 라는 존재나 중생이라는 무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본래부터 있는 법이다. 이 본래지 마음은 한결같다. 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안식지를 얻을 수 있다. 습성지 마음은 중생심을 말한다. 연을 만나 식識이 쌓여 형성된, 이리저리 흔들리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다. 지식지 마음은 배워서 아는 마음이며 지혜지는 정확한 판단심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인양 착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라 하여 '알음앎이' 라는 말을 쓰지 않는가. 지혜지는 남을 괴롭히는 마음이 아니고 많은 공부 끝에 얻어 상당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혜지에 그치면 철학이 된다. 마음은 본래지에서 출발해서 본래지로 돌아와야 한다.

ㅇ 돌아옵니까.

그지.

ㅇ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또 돌아와 또 변하잖아.

ㅇ 아

갔다 왔다가 다시 또 나가잖아. 본래지 마음도 본래지에서 식이 나가잖아. 식이 습이 되고 습이 업이 되거든. 업을 다 녹이고 습을 다 녹이고 식을 녹이면 다시 본래지 마음으로 돌아가잖아. 수학의 0하고 같잖아. 본래지 마음이 회복돼야 안식자가 된다.

ㅇ 그러면 자기성찰을 계속하게 되면 습이나 업이...

녹아내린다. 업을 녹이는 약은 약은 없어.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서 녹아지지.

ㅇ 지혜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녹이기가 쉽겠죠.

지혜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좀 쉽지. 무지한 사람은 욕심만 안대이.

ㅇ 본래지 마음에서 식이 나오고 식이 습이 되고 습이 업이 되는 것은 본래지 마음에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까?

본래지 마음에서 식이 나와 식이 습이 되고 업이 되면 업에 자기가 말려 들어가서 빠져 들어가면 결국은 고통을 받잖아. 본래지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자기가 말려 들어가지를 않아. 우리 흔히 공부하는데 부즉불이란 말이 있거든. 애착을 붙여서도 안 되지마는 착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거라. 본래지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본래지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성취했잖아 성취했으면 사람이 필요한 게 있어서 달라면 쉽게 줄 수가 있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못 줘 아까워서. 본래지 마음을 회복한 사람은 돌려줄 줄 알지만은 본래지 마음을 회복 안 한 사람은 돌려주지를 안 해. 이건 내꺼다 쥐고 있는 거야. 쥐고 있으면 그건 지옥이라. 전부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기라.

ㅇ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선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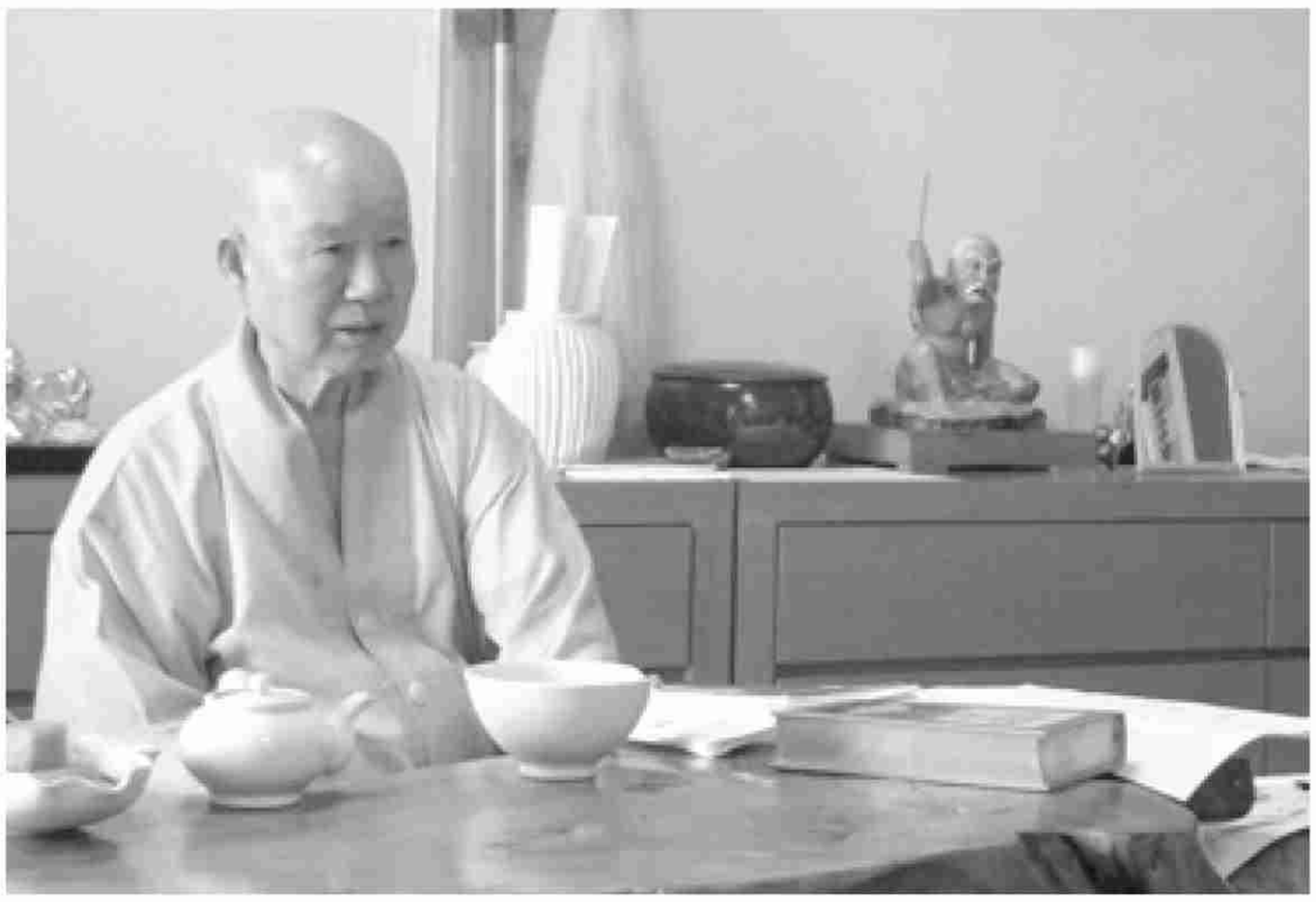
틀을 벗어나기보다도 인식을 자유자재할 줄 알아야 돼.

ㅇ 인식에 매이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네요. 인식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줄 아는 주인공 그게 본래지 마음이잖아.

ㅇ '나무하고 물긷는 것이 신통묘용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본래지 마음에서 나무를 하나 물을 길으나 그건 다 생각할 줄 아는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그 자리가 바로 안식처다 그러지. 그게 이제 간화선하고 묵조선하고 차이가 그거라. 묵조선하는 사람은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여기서 머물러 버려. 잠 올 때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 자리가 부천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다. 그게 묵조선의 폐단이다. 요즘 신도들도 그러거든. 빨래하고 방 닦고 설거지하고 걸레 짜고 이대로가 부천데 따로 뭐가 있나 이러거든. 그거는 자기가 실지적으로 마음이 안정되



어서 화두가 들리면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건 속임수가 아니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공부가 안 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신도들이 많다고. 그리고 또 실지묵조선하는 사람은 즉심시불이 바로 믿어져서 안식, 낙원의 범위를 넓히는데 소극적이다. 더 활동해야할 활동을 안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기라. 간화선은 그기 아니라.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믿어지는 안식에서 안착이 아니라 다시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아는 주인공이 무언지 무언지 의문 참구가 다시 붙는기라.

○ 그래야 진정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거네요.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아는 주인공이 무언지 무언지 의문 참구가 계속 반복 반복 끊어지지 않는 거 의문이 끊어지지가 않아야 돼. 계속 반복이 되는 거.

○ 의문이 풀려서 끝난 게 아닙니까.

풀려서 끝난 게 그게 위험하다고. 다시 의문이 또 붙어야 돼. 화두를 타파할 줄 아는 주인공이 뭔가 의문이 또 붙어야 돼. 의문이 안 붙으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송화두誦話頭(염불)를 해야지. 마음이 부처인줄 아는 태초의 지가 무언지 무언지 의문 발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계속 의문이 붙어야 돼. 따신 연을 만나면 스스로 따신 줄을 아는 지의 태초가 무언지 무언지 의문착이 없을 수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도 끝에 가서 결론은 모르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격외의 도리가 나오지.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점을 찍으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점을 안 찍었기 때문에 종교이면서 철학이다.

○ 닦음이 없다는 말은...

닦음이 없다는 것은 본래지를 말하는 거지. 거기는 닦을 게 없잖아. 제법부동본래적해 놨잖아. 본래부터 밝고 밝은데 닦을 게 없잖아. 닦을 게 없다고 해서 방심하는 건 아니라. 부즉불이라고 했잖아. 애착해서도 안 되지만 애착 안 해서도 안돼. 끝은 없어.

○ 간화선이란 게 원래 끝은 없는 거네요.

끝은 없지.

○ 화두를 타파하면 끝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크게 잘못 아는 거지. 타파해도 타파할 줄 아는 주인공이 뭔지 참구가 또 붙어야 돼. 의문이 안 붙으면

다시 아미타불로 돌아와야 되지. 옛날에 경허스님 같은 분은 화두 타파하고 나서 세속에 내려갔는데 그 분이 잘못한 거라. 승속이 둘이 아니지만 둘이 아니면서 둘로 나눠야지. 둘이 아니라고만 하면 안 돼. 나눌 줄도 알아야지. 둘이 아닌 줄만 알아도 안 돼. 태초 알 줄 아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타락이라. 내 의문이 붙어야 돼. 노력은 계속해야 돼. 노력이 멈추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도 격외로 돌렸잖아.

ㅇ 참선할 때 삼매를 중요시하는데 삼매란 무엇입니까.

삼매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간절한 생각 간절한 마음이 삼매야. 간절한 마음은 영원히 영원히 끊어지면 안 돼.

ㅇ 의문착이 붙어 삼매에 들면 세월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령스럽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바보로 모르는 게 아니고 세월이 쉽게 갔다 그 말이라. 느끼되 깝깝하지 않고 쉽게 갔다는기라.

ㅇ 의문착이 안 붙을 때 송화두를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랄까요 그런게 있습니까.

송화두 하는 것도 간절해야 돼. 신앙으로 간절해야 돼.

ㅇ 송화두를 하면 의문착이 붙습니까.

그래 그건 내가 장본인이라. 나도 관세음보살하다가 관세음보살하는게 누군가 이게 나중에는 시심마 화두가 돼서 지금도 내가 그 화두를 들고 있잖아. 화두를 받아도 의문없이 앉아 있는 것은 입에 자갈물고 있는 거랑 같애. 그럴 바엔 송화두 해야 돼.

ㅇ 송화두를 계속 하면 번뇌가 좀 약해지겠네요.

번뇌 일어나는 것은 아무 상관하지 말고 염불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망상을 안 피우려고 하면 그게 또 망상되잖아. 안 피우려는 말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그대로 쫙 관세음보살 하려고 하면 망상은 자연히 녹아져.

ㅇ 송화두도 하기 싫으면...

그건 타락이지.

ㅇ 가장 큰 마구니가 하기 싫음이란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팔만 사천 마구니 중에 나태심 이상 더 큰 마구니는 없어. 끝까지 따라 다녀. 적은 자기지 남은 아니라. 신심 없으면 천하 불쌍한 게 중이다. 신심 있으면 항상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하다고. 신심 없으면 얼굴이 쓸쓸하다. 스님 생활이란 게 내 반복이다. 어제 치는 종 오늘 치고 오늘 치는 종 내일 치고 신심이 없으면 금방 싫증난다. 세속 생활이란 게 리듬이 바뀌잖아. 프로그램이 바뀌어가는 게 재미가 있는데 불교는 똑같이 반복하니까 결국 싫증을 내잖아. 싫증내면 결국 나가게 돼.

진짜 싫증내지 않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을 듣는 것이 염불을 하는 것이 경을 보는 것이 싫증나지만 않는다면 현실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미래야 보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처음 발심한 때야말로 이미 정각을 이룬 때란 말이 있듯이 한마음 내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적은 자기라는 말이 방망이가 되어 가슴을 후려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남의 돈 세는 일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해 본다. 定慧社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이니라.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곧 스스로 그것을 고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니라.

내 가르침은 넓고 커서 큰 허물이라도 용서하나니

지금 참회하는 것이 좋다.

증일아함경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증일아함경

학인기고

제17대 카르마빠(Karmapa)의 채식주의 이념 / 육식에 대한 금식에 대한 법문

자용慈容 | 사교

이 글은 제17대 카르마빠께서 육식을 금하는 내용의
연설문을 영어로 번역한 글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것이다.
부처님께서 전해 주신 교법과 율장을 토대로, 그리고 앞선 린포체들께서
강력히 주장하셨던, 육식을 금지해야하는 이유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앞으로 출가자이든지 재가자이든지 생활 속에서
육식을 금지해야한다는 강력한 내용을 법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끝으로 이 중요한 법문을 번역하는데 있어 많은 문장의 오역과 번역자의
짧은 견해로서 카르마빠 존자의 법문의 취지를 어긋나게 하지 않았나
내심 걱정하면서 글을 올린다.

2007년 1월 3일, 보름, 부다가야 인디아, 제 24 주기 대 카구의 기도 법회(Great Kagyu Molam) 행사 기간 중. 동시 통역자: 린구 툴쿠 린포체(Ringu Tulku Rinpoche)

나는 약 한 시간 반 동안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한 법문을 하려고 한다. 법문에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 또는 고기 음식 섭취를 그만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나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고찰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수행으로 삼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이 30분이 막 끝나 가고 있기 때문에 법문을 곧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우리 함께 모두 기도 발원하자.

(염불).

보편적으로 계를 제정했던 사람들에 의거한다면, 만약 수행자에게든지 아니든지 간에 육식을 허용해야 하냐고 당신이 묻는다면, 만약 육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육식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육식을 위해 동물을 죽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육식은 살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살생의 악업에는 육식이 가장 지대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만약 진주 보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진주 보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주조개를 살생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또한 어떤 동물이나 또는 어떤 벌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정의 옷이나, 실크로 짠 천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이러한 의상들이나 또는 동물로부터

Index
Teaching by His Holiness 17th Gyalwang Karmapa

The 17th Karmapa's Talk on Vegetarianism / Not-Eating- Meat; as Translated Simultaneously, by Ringu Tulku Rinpoche: January 3rd, Full Moon Day, Bodhgaya India, during the 24th annual Great Kagyu Monlam, 2007

Since I have about a half an hour, I wanted to talk about being vegetarian. It's not easy to talk too much about being vegetarian, to give up meat eating.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know how to think about eating meat and how to put it into practice. Now I should start to talk because this half hour is about to finish. To begin with we will say some prayers.

[Chanting]

Generally regarding those who are ordained, if you ask if meat is allowed for the monks or not, some people say that it is not allowed because if there are people who are eating meat, then there will be people who will kill those animals, and if there is no one eating meat then there would be no one will make the meat. So therefore eating meat is very much related to killing and therefore the negative deed of killing is very much caused by eating meat. Now whether that is true or not is something different? If there are people who are using the pearls, then these people who use the pearls cause the killing of the shellfish. And also those people who wear certain kind of dresses, people who wear brocades silk is also made by certain animals or certain insects for anybody who is wearing these clothes or anything that is coming from animals [is also killing animals].

And also if there is nobody who eats meat, then because of eating things like grains and so forth, also this causes lots of insects under the earth to come up on the earth and then all those beings living on top of the earth go below and therefore cause a lot of beings to die.

Because there are sheep, there will be people who are killing the sheep. So therefore, being a sheep is also a problem, a kind of source of the negative deed. [Therefore] just being one cause cannot be the same as being the actual deed of negative things.

There was once a person in China who used to butcher pigs. Each day he used to kill a pig and he used to make his sword red. Sometimes he thought, why should I do this? Each day I'm killing a pig? And he thought, it's not because I want to kill the pig but because other people want to eat [it] and need the pig and therefore that's why I'm doing it? and so he was consoling himself that it's not too bad.

온 어떤 것이든지 이것들 또한 동물의 살생 업이다.

그리고 또한 만약 육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곡물이나 땅에서 나는 산물들을 먹는다면 땅을 갈며 농사를 짓는 이유 때문에, 지구의 지표 밑에서 서식하는 많은 벌레들이 지표 위로 올라오게 되고, 지표 윗부분에 사는 또 다른 생명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런 뒤, 이러한 까닭에 땅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벌레들과 같은 많은 생명들이 죽는 원인이 된다.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을 죽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양의 존재 또한 악업의 원천의 종류이자 문제이다. 그런데 단지 양과 같은 생명의 존재 원인은 실지로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현행의 업과는 동일할 수가 없다.

옛날 중국에 늘 돼지를 도살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일마다 돼지 한 마리씩을 죽였다. 그리고 항상 그의 칼을 피로 물들였다. 때때로 그는 '왜 나는 이래야 하는가?' '나는 매일 돼지 한 마리를 왜 죽이는가?' 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그 돼지들을 죽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길 원하고 그리고 그들은 돼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서 내가 죽이는 이유이다' 그런 뒤 이것은 나쁘지 않는 일이라고 그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의 집 근처에는 사찰이 하나 있었다. 사찰 안에는 큰 범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에 범종 치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난 뒤 돼지를 도살하기 위해 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돼지들을 늦게 도살했기 때문에 그가 도살했어야 할 어린 돼지가 열 마리나 되었다. 그런 뒤, 범종이 울리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는 그 사원에 가서 주지스님께 오늘 아침 왜 범종이 울리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주지스님께서 그에게 말했다.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주지스님께서 열 마리 돼지들을 만났는데 돼지들이 주지스님께 다가와서 애원했다. '제발 저희 열 마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뒤 주지스님께서 물었다. '어떻게 내가 너희 열 마리를 구할 수 있느냐?' 돼지들은 주지스님께 대답했다. '단지 스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은 새벽에 범종을 울리지 않으시는 것이 저희 모두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스님께 드렸다. 그런 이유로 주지스님은 새벽에 범종을 울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매우 감명을 받고 그 이후부터 어떤 돼지도 다시는 죽이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범종을 울리는 것이 돼지들을 죽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을 울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돼지를 죽이는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지 한가지의 조건을 이루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실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는지 아닌지 간에 율장(Vinaya)에서는 육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들과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었고 먹으면 안 되는 고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 생각에는 대승 불교(the Mahayana)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율장에는 육식을 하기 위해 고기를 얻는 데 있어 세 가지 청정한 방법이 있다. 그러한 세 가지 것(삼독, the three defilements of adultery, anger and ignorance; 탐, 진, 치)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육식이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 스스로를 위해 죽이지 않는 등 이와 같다면, 그러나 당신이 고기 맛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갈망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 고기가 얼마나 당신에게 헌신적인지 아닌지를 당신의 집착과 갈망 때문에 알지 못 하는 것이다.

There was a monastery nearby and in the monastery there was a big bell and every morning when the bell rang he got up and went to kill the pig. One morning, he overslept and woke up late and when he went late to kill his pig, the pig that he was supposed to kill already had 10 piglets. Then, because that morning there was no bell rung, he went to the temple and he asked the head monk why was it that this morning there was no bell. And the head monk told him that he had a dream last night and in the dream he met ten beings and they came and asked the monk, please save ten of us? And then the monk asked, how do I save you piglets? And the piglets said, the only thing you need to do is not to ring the bell this morning and then you will save all of us? And then the monk said to the butcher, therefore, I didn't ring the bell? When the butcher heard this he was very moved and stopped killing any pigs from that time onward.

What I'm saying is that ringing a bell became a cause for killing the pigs, and so therefore, sometimes it may also happen that we should not ring a bell because someone might kill a pig. So only being one condition cannot become the real cause of the problem. That is not logical, but whether the Buddha allowed the monks to eat meat or not? In the Vinaya it is mentioned that there are certain ways of being able to eat meat, and certain kinds of meat cannot be eaten and it is also mentioned that those kinds of meat that cannot usually be eaten, can be eaten in some circumstances: there are things like that.

But generally it is very important, I think, in the Mahayana, not to eat meat. In the Vinaya they talk about the three kinds of pure ways of making meat, that if it should be free from three kinds of [???? word is unclear], then it is allowed to be eaten. For instance, if it is not killed for yourself and things like that. But because you are so attached and have so much craving for the taste of meat, you [may not] know whether this meat is specially dedicated for you or not. Sometimes people are so attached to meat that they go and ask people, "Please give me some meat."

When I was young, I was also very attached. I liked meat very much. The meat finished very quickly. The labrang's meat finished very quickly but sometimes the monk's meat was still there because the monks were more careful. Then I went and asked them to send some meat from the monk's kitchen. Because I was eating meat, therefore I also influenced other people to eat meat. If I like meat, then people around me are influenced by me, because I give meat. I said I would like some momos; let's go and get some meat momos? And then other people eat meat momos.

So therefore the Buddha said that the Bodhisattvas should not eat any meat. Because we have such strong attachment and aptitude or tendency to eat meat, therefore, for the

어떤 때에는 사람들은 너무 육식에 집착하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나에게 고기를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

나는 어릴 때, 육식에 매우 집착해서 육식을 매우 좋아했었다. 나는 고기 음식을 재빨리 먹었다. 음식점에서의 일반인을 위한 고기 음식은 재빨리 없어졌지만 그러나 간혹 스님들을 위한 고기 음식들은 스님들께서 조금은 조심스러워 하셔서 식사를 끝마치기 어려워, 나는 스님들께 다가가 고기 음식들을 스님들께 공양 올려도 되냐고 물었다. 내가 고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고기 음식을 먹는 것에도 영향을 주었다. 만약 내 자신이 육식을 좋아하면, 내가 고기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도 또한 나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신은 모모를 좋아 하십니까? 함께 가서 고기 모모를 먹읍시다' 라고 나는 물었다. 그런 뒤 다른 사람들과 고기 모모를 먹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the Bodhisattva)은 반드시 어떤 육식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육식에 대한 매우 강한 집착과 습성 그리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살심을 발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다. 당신이 일반 음식점에 가서 닭 요리를 달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그 음식점에 이미 닭고기를 준비해 두었는지 아니면 닭을 죽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 한다(그것은 간접적으로 살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보살은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관세음보살(Chenrezig) 또는 금강장보살(Chana Dorje)과 같은 위대한 보살들과 천신(bhumi)들과 같은 높은 지위의 보살들이 아니라, 단지 인지체로서 욕망을 위해 전념하며 보살이라 부르기를 기원하는 우리 평범한 범부와 같은 보살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보살승에 따르면, 비록 육식이 율장에서 허락한 고기를 얻기 위한 청정한 세 가지 방법들과 그러한 청정한 종류의 고기일지라도, 보살들과 초심자들은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엄청난 미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갖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육식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살도의 삶에서는 육식을 금지해 왔다. 당신이 이것을 말할 때 율장에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율장 자체가 좋지 않다는 뜻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육식을 할 때, 이와 같이 단지 우리의 음식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친자식과 같이 사랑스러운 인지체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서, 우리의 육식을 위해 사용한 고기에 대한 이러한 사유의 방식은 육식을 금지하게 하고 보살도의 견해로서 냉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문승(the Shrahakayana)의 견해로서 선행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것이다.

당신이 고기의 주인이었던 동물을 보았던지 들었던지 그 동물이 왜 당신의 육식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의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육식을 위해 그 동물은 죽을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유들"에서, 심지어 당신을 위해 죽지 않았다 하여도 당신이 보지 못 했든지 또는 듣지 못 했더라도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죽이지 않았다는 의심을 품지 않아도, 보살도의 삶에서는 더욱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티벳에서는 수행자인 우리를 위해 보시한 고기 음식은 대개 먹는다. 티벳에서는 만약 위대한 라마승 또는 어떤 라마 승려가 마을에 가면, 마을 사람들은 곧 양이나 야크 중 한 마리를 죽이고 난 뒤 그 라마승이 어떤 만트라를 죽은 동물에게 말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말한다. 그것은 나쁘다. 비록 라마승이 매우 훌륭하고, 고기 음식이 괜찮다고 생각

beginner Bodhisattvas it is very good not to eat meat. When you go to the restaurant and say, 'Give me some chicken?' then you don't know whether they already have some chicken prepared or they have to kill the chicken. Therefore it is said that a Bodhisattva should not eat meat. That's how it is said.

And when we talk about Bodhisattvas here, we are not talking about the great Bodhisattvas like Chenrezig or Chana Dorje, and great kinds of Bodhisattvas who are in higher bhumis, but just ordinary Bodhisattvas like ourselves who can be called Bodhisattvas who wish to work for the benefit of sentient beings. According to the Bodhisattvayana, it is said that, even if [meat] is pure from the three ways as allowed in the Vinaya, even those kinds of meat, the Bodhisattvas or the beginner Bodhisattvas should not eat. Because of our having too much attachment to the taste, therefore, unknowingly we will kind of commit mistakes, thus it is not good to eat meat.

Therefore it has been prohibited to eat meat in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 When you say this, it is not that because meat is allowed in the Vinaya: that doesn't mean that the Vinaya is not good. It's not like that. [Rather] we have to see every being as our own son or our own child, and therefore when we eat meat, it is like, just for our food we are giving up the sentient beings who are supposed to be dear to us, like our own child. So therefore, this way of using the meat for our food, is a little bit like, not only something that is prohibited or looked down upon from the Bodhisattva's point of view, but is also something that is regarded [as] not good from the Shravakayana point of view.

Meat that you have either seen or heard or you are doubtful about whether or not the animal is killed for your consumption: that is not pure. Meat that is not killed for you, as we said before,--the three reasons--even if it is not killed for you and you either have not seen nor heard and have no doubt that it was not killed for you, even then it's not permitted to eat it from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 But in Tibet of course, we usually eat the meat that's dedicated for us. In Tibet, if a big lama or some lama goes to a village, they [in the village] will immediately kill a sheep or kill a yak and then the Lama says some mantras and thinks that's okay. That is not good. Even if the Lama is very good and thinks that it's okay, it is not okay because the Buddha said that one should not eat any meat that has been specially dedicated for you or specially killed for the consumption of yourself.

There was once a lama in Amdo, a Jonang Lama, and one man came to bless the chang (chang means alcohol). This man came to the lama with some alcohol and asked him to bless it because he thought that if you bless it then you can drink it. The lama said, I don't know how to do that. I don't know how to bless it? Then the lama said that if that is the case, you know in Tibet sometimes they kill the yak by suffocation, and he said if

하여도, 부처님께서 사람은 특별히 자기를 위해 보시 받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육식을 위해 죽여서 만든 고기 음식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옛날 암도(Amdo)에 한 라마승(조앙 라마승)이 살았었다. 한 남자가 그 라마승에게 와서 창(Chang; 술이란 뜻)에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왔었다. 이 남자는 그 라마승에게 어떤 술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만약 당신이 술에게 축복한다면 당신이 이 술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뒤 그 라마승에게 그 술에게 축복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었던 것이다. 그 라마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축복하는지를 모른다 말했다. 그런 뒤 그 남자가 "만약 이와 같은 경우처럼, 티벳에서는 가끔 야크를 질식시켜 죽인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라마승에게 질문했다. 그 라마승은 "만약 당신이 동물들을 질식시켜 죽이고 그리고 축복을 내린다 해도 그 동물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경우로서 그 라마승은 "당신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술에 축복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티벳이든지, 그 라마 승려나 그 남자든지 간에 매우 현실적이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교법과 계율들에 따라서 적어도 사람들은 행동해야 한다.

인도에는 많은 위대한 스승들과 매우 위대한 깨우친 선인들께서 계셨고, 또한 티벳에도 깨달았던 많은 선인들께서 계셨지만 그들은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고기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어떤 것도 전혀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지 않아야 한다. 카쿠빠학파(the Kagyupa School)에 의하면, 우리는 과거 위대한 스승들, 카쿠빠의 과거 라마승들께서 육식에 대하여 무엇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 드리쿤파의 스승인, 드리쿠잉 샥파 린포체(the Drikung Shakpa Rhinpoche)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고기 음식을 먹거나 고기를 사용하고 그것을 촉고(tsorkhor; 제단에 올리는 공양물) 또는 촉(tsok;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물들)이라고 부르는 수행자들은 나를 전적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교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각각의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드리쿠잉 샥파 린포체께서는 "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교법과 나에게 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교법을 통해서는 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주장하셨다.

또한 다른 위대한 스승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 각각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육식을 하고 육식을 허용했다고 생각한다면 육식을 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행위도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꿈도 꾸어서도 안 된다. 어떤 곳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먹은 그 고기의 주인인 어떤 동물이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구제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금강승(金剛乘, the Vajrayana)에 따라서 단지 그 사람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 외의 사람은 육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카메 착미 린포체(Karme Chakme Rinpoche)께서는, 다섯 가지의 고기 음식과 다섯 가지의 불로불사의 감로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단지 그 사람만이 육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금강승(金剛乘, the Vajrayana)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식에 대하여 언급했다면, 금강승에서 언급된 많은 것들은 다섯 가지 고기와 다섯 가지 감로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가장 뛰어난 스승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대소변을 제단 위에 놓는다면, 너무 더럽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메스꺼워 할 것이다.

you suffocate the animal and then bless it, doesn't it die? So in the same way, he said, I cannot bless the alcohol in such a way that you can drink it without having any problem. And therefore, whether it's in Tibet, whether this lama or the person is very highly realized, even then one has to act according to the law or the precepts that have been prescribed by the Buddha.

There are many great masters and very great realized beings in India and there have been many great realized beings in Tibet also, but they are not saying, I'm realized, therefore I can do anything; I can eat meat and drink alcohol.?It's nothing like that. It should not be like that. According to the Kagyupa school, we have to see what the great masters of the past, the past lamas of Kagyupas, did and said about eating meat. The Drikung Shakpa [sp?] Rinpoche, master of Drikungpa, said like this, My students, whomever are eating or using meat and calling it tsokhor or tsok, then these people are completely deserting me and going against the dharma? I can't explain each of these things, but he said that anybody that is using meat and saying it is something good, this is completely against the dharma and against me and they completely have nothing to do with dharma. He said it very, very strongly.

Other great masters also said this. And each of them said that if somebody eats meat and thinks that it's allowed, you can't even dream like that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is never right and never good. In some places it is said that if someone has a great method by which they can liberate the being whose meat he eats, only then might that person eat it, according to the Vajrayana. Otherwise, other than that, you cannot eat meat.

According to Karme Chakme Rinpoche, we talk about using the five meats and five amritas: if someone is completely realized, then only can one eat meat. And then if you say that many things are mentioned about this in the Vajrayana--in Vajrayana, lots of things are mentioned about the five meats and five amritas, what is this? He said that that is only for the most advanced people. For instance if you put some shit and some urine on the altar, it's very bad. We don't like it and we feel like vomiting.

Making offerings is not for the fullfilment of the great masters, that they are hungry and thirsty and then we have to give [things to] them. It's not like that. Why we have to offer is in order to accumulate positive deeds for us.

The [8th] Karmapa Mikyo Dorje also said, that if you offer meat during the guktor and things like that, for the Mahakala puja [if] you put some meat or you put some alcohol or things like that he very strictly prohibited that. He said if you do that, I'm not your lama. You are not my disciples, or my followers, completely not. In all the monasteries,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위대한 스승을 위한 의무의 이행이 아니다. 그분들이 시장해 하고 갈증을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선업을 쌓기 위한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제 팔대 카르마빠 미코 돌제(the Karmapa Mikyo Dorje)께서 만약 쿱토(the Guktor; 매년 12월 29일 부처님의 신장들에게 기도하는 날)행사 기간이나 마하칼라 푸자(the Mahakala Puja; 한 해의 대 축원 기도 행사)기도회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고기 음식이나 술 또는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보시물로써 공양을 올린다면, 그는 매우 엄격하게 그런 행동을 금지시켰다. "만약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너희의 라마승도 아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도 아니고 추종자들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원들, 캄사탕(the Kamtsang)에서 카르마빠께서 너희들은 고기 음식이나 술을 가지고 어떠한 공양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적어도 과일은 올려도 된다. 스킴(Sikkim)에서 쿱토(the Guktor)행사 기간이나 마하칼라 푸자(the Mahakala Puja)기도회 기간 동안 당신들이 고기 음식을 조금 올렸다는 것을 나는 들었다. 만약 마하칼라(Mahakala)께서 직접 오셔서, 약간의 고기 음식을 드시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좋다. 그러나 만약 마하칼라를 위해 우리가 술과 고기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그 음식들을 먹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쓸모없고 좋지 못한 일이다.

다시 카르마빠 미코 돌제께서 투톤 가얕사(Tuton Gyatsa)에는 수행자로서 버려야 할 여덟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육식과 음주와 무기소지와 도 팔모 체(Do Palmo Che)에서 서술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 할 수는 없는 것까지 말씀하셨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식과 음주와 그리고 무기소지이다. 이것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 이 여덟 가지를 포기할 수 없다면, 당신은 카쿠빠에 속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즉시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안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육식을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카쿠빠의 소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당신이 카쿠빠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없다.

잠곤 꽁툴 린포체(Jangon Kongtrul Rinpoche)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기를 항상 기도했다.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하는 많은 서적과 인용어구들이 있다. 〔언급한 첫 경전의 이름은 불투명하다〕, 도 랑 세파(Do Lank Shepa; 부처님께 질문했던 보살), 나 엔 레 데파 도(Na Nyen Le Depa Do; 열반경)등 이 모든 경전에서는 육식은 명백하게 금기시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육식을 할 수 있었던 허용된 장소들도 거의 희박하게 허락되었다. 육식을 먹는 것을 장려한 것은 아니다. 육식을 좋다 또는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건강상 육식을 하지 않으면 신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러한 때는 육식이 거의 조금 허락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티벳에서는 간덴의 산에서 온 자들, 중생들의 수호자인 까규파(Kagyu), 비밀교 닝마(Nyingma), 영광의 사캬파(Sakya), 겔롭파(Gelung), 종카파(Jonang) 그리고 많은 곳에서 변함없는 뵌뽀(Bonpo; 티베트 최초의 자연종교로서 주술적인 면이 강하다. 뵌교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전통과 수행이 계승되고 있다)에 대하여 전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모든 곳에서는 육식을 완전히 금지했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약 열 한살 내지 열 두살 정도 어렸을 때, 한 손금 수상가가 내 손금을 보고는 "당신이 스물 셋 또는 스무 넷이 되면 큰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젊어서 이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인도로 온 뒤 약 오년 내지 육년간 병고

the Kamtsang, the Karmapa said, you don't have to make any offerings of meat and alcohol. Maybe you can put some fruits. I've heard that in Sikkim, during the guktor or Mahakala puja, you must put some meat. If Mahakala himself comes, maybe he will eat some meat; maybe that's okay. But if we do that for Mahakala, put [or eat?] an offering of meat or alcohol, that's completely useless. That's not good.

Again, Mikyo Dorje said, in Tuton Gyatsa [sp?], that there are eight things to be given up by the monks, like meat, alcohol, weapons and things like that I can't remember all of them because this is what has been described in Do Palmo Che. Most important about this is the meat, alcohol and weapons. These you can't even look at, he said. If you don't give up these eight things, then you don't belong to Kagyupa, he said. Then you [should] just go away, or sit somewhere else, that's how it is said. If you eat meat you aren't not included in Kagyupa. So we don't know if we are Kagyupas or not.

Jamgon Kongtrul, before he died, said again and again, that he is always praying that he will be reborn as someone who would not eat meat anymore. There are lots of things to read. There are lots of quotations. We should put it into action. How to put it into action: [name of the first sutra mentioned is unclear], Do Lanka Shepa, Na Nyen Le Depa Do, in all of these sutras, eating meat has been clearly prohibited. And even those places when eating meat was just merely allowed, it was not that it was encouraged to eat meat. Nobody said that eating meat is good or that eating meat was no problem. It was just said that those people who have too many difficulties to not eat meat, then eating meat was kind of merely allowed. It was said like that.

Then in Tibet, [among the Kagyu, Nyingma, Sakya, Gelung, and Jonang I haven't read too much about Bonpo] all these places, eating meat was strongly prohibited.

There is something that I want to tell about myself personally. When I was young, about 11 or 12, someone who did palmistry looked at my palm [and said], when you are 23 or 24 there will be a big obstacle." But I was young and I did not think about it. I forgot about it. Then I came to India. It's been about five or six years it happened after [sick]. Then I had a dream. A lama [in my dream] said that someone in palmistry also "told you that there is an obstacle. Don't you remember?" I said, "I remember." Then he said, "There is an obstacle for your life." Usually, I'm not very afraid of death. I'm a Khampa so I pretend to be a little bit brave. In that dream I was very scared. When I woke up my heart was beating very fast. That was a dream, [however] I feel also that there is some obstacle.

Also people like me, if I live long, I don't know if it is much use or not, but from eight years of age until now, I have been raised by the monasteries and the dharma and my

를 맞은 뒤, 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한 라마승께서 어떤 손금 수상가가 또한 너에게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너는 기억하지 못 하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너의 생애 동안 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개 나는 죽음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캄파(Khampa)이기에 그래서 나는 약간은 용감한 척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꿈에서는 나는 매우 두려웠다. 꿈에서 깨고 난 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꿈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또한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은, 내가 오래 산다면, 매우 유용한 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팔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사원에서 경전에 의해서 길러졌고 나의 유일한 의지는 부처님의 교법과 승가와 사원에 조금이지만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나의 의도와 행동들은 지금까지 부정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나는 교법과 모든 생명들에게 헌신하기를 갈망한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살리고 그런 까닭에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느꼈다.

평범한 견해로 그것을 보든지 특별한 견해로서 보든지 간에,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올해든지 내년은 위대한 스승이신 달라이 라마의 '권고의 해'이다. 특히 작년부터 그는 완전히 야생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과 같은 행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러한 행동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는 몇 가지 제안들이 있다: 먼저 숨을 크게 들이 쉬어라! 만약 당신이 캉상(Kantsang)이면, 비구니든지 비구든지 평신도이든지 간에 당신들은 고기를 가지고 동물들을 사는 것과 죽이는 것 그리고 고기를 파는 모든 것들을 통한 상행위를 하지 마라. 결코 상업으로 고기를 파는 것을 사용하지 마라.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티벳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나는 들었다.

투수푸(Tsurphu) 사원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푸줏간은 아직도 있다.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다. 푸줏간은 없애야 한다. 우리는 캄스탕 사원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푸줏간을 없애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대개 카구 전체에 대하여 생각하지만 먼저 캄스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원의 부속 건물이나 사원의 소유지 내에는 결코 푸줏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구들이나 비구니들 뿐만 아니라 캄스탕 사원의 전통을 따라 옹호하는 누구든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이제는 비구들이나 비구니들을 위해서 또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지 마라. 나는 서양 잡지를 보았는데 고기를 자르는 열 명의 비구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많은 고기를 만들었고 많은 고기 음식을 요리한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당신은 고기로 음식을 할 때에는 그 양을 조금 해야 한다. 특히 예복을 입고 큰 모임을 위해 많은 고기 음식을 요리하지 마라.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한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윤회하는 모든 동물들이) 우리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존재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법복을 입고 고기를 사기 위해 푸줏간을 간다고 가정하자 단지 당신이 고기를 사기 위한 이유로. 우리는 식육점에 가는 것을 단연코 줄여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약간의 고기를 필요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기를 사달라고 부탁해라. 수행승들이 푸줏간을 간다든지 고기를 사는 것은 보기에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는 육식을 줄여야 한다. 보통 하루에 두세 번의 식사시간에 고기 음식을 먹는다면, 하루에 한번 내지 먹지 않아야 하고 또는 이와 같아야 한다. 또는 한 달에 한번 고

only intention is to be able to serve, a little bit, the dharma and the sangha and the monasteries. All of my intentions and actions have not been too negative so far. If everything goes well I aspire to serve the dharma and the beings. To get rid of this obstacle I feel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ave lives and therefore not to eat meat. So I feel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ther you look at it from the general point of view or the specific point of view, it is very important not to eat meat. And also, this year or next year, the obstacle year of His Holiness the Dalai Lama is happening. Especially last year he completely prohibited wearing the skins of wild animals and things like that. Now it's very important to do these things.

I have some proposals: First, breathe out strongly. If you are Kamtsang, whether you are a nun or monk or layperson, you should not do business in meat, through buying animals and killing them and selling the meat. So never use selling of the meat as a business. That's one thing; that's very important. That's not only those who are in India, there are lots of people in Tibet who are doing this. I have heard that some even tulkus in Tibet are doing this kind of business.

In Tsurphu monastery, everything kind of got destroyed but the slaughterhouse is still there; that still remains. There should not be a slaughterhouse. We should make every effort that there is no slaughterhouse wherever there is a Kamtsang monastery. I usually think about the whole Kagyu but first thing we have to talk about is Kamtsang. So there should not be a slaughterhouse in the compound or which is belonging to the monastery. That should not be. That is not only for the monks and nuns but anybody who is claiming to follow the Kamtsang tradition, everyone should take this into mind.

Now for the monks and nuns....also [do not] cook meat in a big way? I was looking at a western magazine and I saw about ten monks cutting meat. And it looks as if they are making so much meat and cooking so much meat. Sometimes you have to do a little bit, but to cook a lot of meat for big gatherings, especially wearing the robes, this should not be done. That doesn't look good also. Usually we say that there is no being who has not been our father or mother? And then, [regarding] going to the slaughterhouse wearing the robes to buy meat when you go to slaughterhouse, the only reason is to buy meat. We should lessen going to slaughterhouse.

If you really, really need to buy some meat you should ask some other people to buy it. For monks going to the slaughterhouse and buying meat looks very bad. And then we should lessen the eating of meat. Generally we eat three times a day and so we should eat meat only once a day and not all the meals, or something like that. Or we should say

기 음식을 먹자고 말해야 한다. 티벳인들은 대개 (특별한 날들 즉) 보름날, 초하루, 초툴 다우(Chotrul Daway; 음력 1월 15일 부처님과 외도들의 첫 논쟁일) 또는 사카 다우(Saka Daway; 음력 4월 밀교 행사)와 같은 이런 중요한 날들은 사람들이 육식을 금지하는 날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육식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고기 음식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같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만약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한다면, 육식을 끊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회나 전체 환경이 육식을 하지 않는다면, 육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한다면 육식을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다음 법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한두 끼 식사가 아니고 한 끼 식사 때에만 육식을 하였는지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누구든지 손을 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손을 드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그리고 평상시에도 육식을 포기했는지 물어 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생각할 많은 것은 없다. 당신은 단순히 결정해야 한다. 너무 많은 생각은 실제로 필요 없다. 결정하라.

내가 잊어버린 다른 것은 캄스탕카쿠에 소속된 어떤 사원의 부엌에서도 고기 음식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고기를 가져와 사원 내, 부엌에서 고기 음식을 만든다면 당신은 나를 당신의 스승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카르마카쿠(Karma Kagyu)에 소속이 안 되려는 의미이다. 그것에 대하여 토의할 것이 없다.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전에 티벳에서는 매우 곤란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친절함 때문에 어렵지 않다. 단지 먹을 것이라고는 고기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은) 채소들과 다른 먹을 것들이 있다. 육식은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고, 더럽고, 나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방법으로서 육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촉진시켜야 한다. 위대한 달라이라마의 장수와 또한 아포 가가(Apo Gaga)를 위해 좋은 것이다. 당신 또한 내 이름을 사용하여도 좋다. 만약 아포께서 장수하시길 원한다면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유용하다. 당신의 루터 구루(Root Guru)와 다른 위대한 성현들께서, 장수하시길 원한다면 그렇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육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는 것이다.

다음 법회 때에는, 한번 서약을 했다면 당신은 정말로 지켜야 한다. 만약 당신이 처음 서약을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매우 강하게 했다면 두 번째 서약은 좋을 것이고 세 번째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서약은 매우 강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당신이 정말 실행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결심이 없다면 서약을 만들지 마라. 定慧社

위대한 제 17대 갈왕 카르마빠의 법문

that you will eat meat only once a month? or something like that. Tibetans usually think that kind of special days are very important like the full moon day or new moon day or Chotrul Dawa or Saka Dawa. There are people who don't eat meat on those days.

Some people give up meat altogether, but some people cannot. But at least, one should reduce it. Because in the society, if everybody is eating meat then it is very difficult to give up meat, but if there is a society and the whole environment is not eating meat then it's easy not to eat meat. But if everyone is eating meat then it is not easy to stop eating meat. In the next session I will ask you, how many of you will eat meat for only one meal and not in the two other meals. So those who will do that, should raise you hands. I don't have to see all of them but you must make the promise to yourselves. Then [I'll ask]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give up meat on special days and how many of you would give up meat for all the time. So you have to think. [However], there's nothing much to think about. You just have to decide. Thinking too much is not really useful; you just have to decide.

Another thing I've forgotten is that any monastery that belongs to Kamtsang Kagyu, the monastery kitchen cannot and should not make any food with meat. And if you bring meat and cook it in the monastery kitchen then that means that you are not taking me as your teacher, you are not belonging to Karma Kagyu. And there is nothing to discuss about that. That's finished. That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Tibet, before it was very, very difficult, but now because of the kindness of the Chinese it's not so difficult. It's not that there is only meat you can eat, there are some other things also, there are vegetables and things like that. You have to think, eating meat is not good, eating meat is dirty and bad for your health, this kind of way of looking has to be cultivated. It's good for the long life of His Holiness the Dalai Lama and also for Apo Gaga. You can use my name also. If you want Apo Gaga to live longer, it's useful not to eat meat. And your own Root Guru and all the great beings, if you want them to live long, the best method to do is to reduce meat or not eat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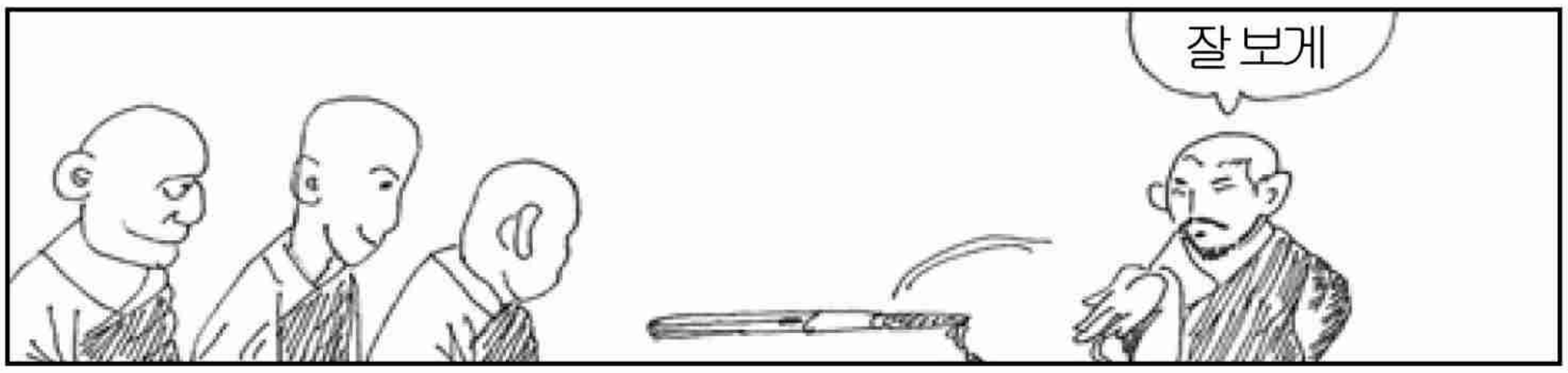
In the next session, once you make the commitment you should really keep it. If you make the first commitment very clearly and very strongly, then the second commitment will be good and the third also good, so the first commitment should be very strong and you should not make the commitment unless you can really do it and have the mind to d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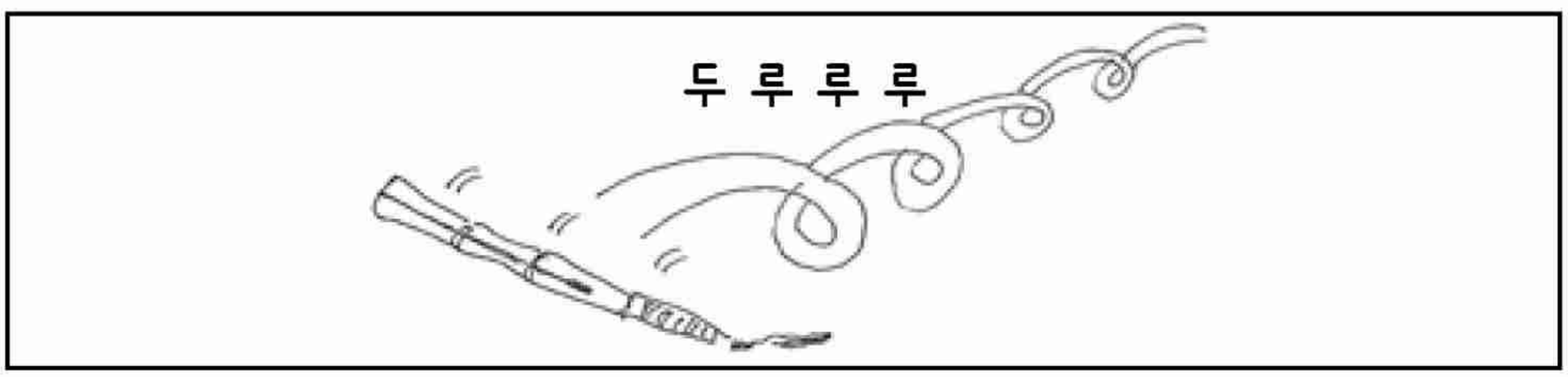
http://www.geocities.com/karmakiwi/HHVegetarianism.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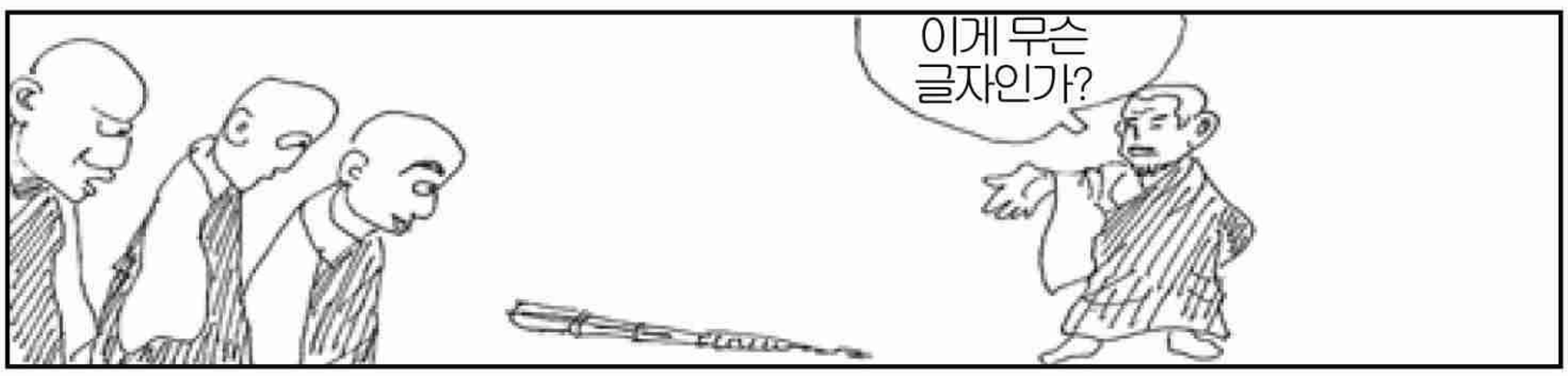
목우만평

혜월스님의 문자

글·그림 종안宗眼 | 사교


잘 보게


두 루 루 루


이게 무슨
글자인가?

헤~ 작대기 하나 던져 놓고 무슨 자라뇨?
이 사람아, 이렇게 쉬운 글자도 모르는가
임금 王자 아닌가! 땅(土)위에 一 한 일자가 누웠으니 王자 아닌가

깨달음과 지혜는 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세

편지

서공西空 | 사집

두윤 스님께

장마철 끝자락에 무더위와 습도가 과연 송광사 여름이구나 싶습니다. 만의장삼 수하고 예경하기 위해 법당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불어오는 실낱같은 미세한 바람에 이마와 등줄기에 흐르는 땀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나를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미소 짓곤 합니다. 저번에 주신 편지 잘 읽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면 읽고 읽어 위로가 되곤 합니다.

작년 치문반 초반에 시선하향하고 묵언하던 시절 윗반 스님들 얼굴과 법명이 일치가 안될 때였죠! 스님께서는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며 짧은 포행을 권했었죠. 당시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 역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시작했던 소임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스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 같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버린 우리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력은 정말이지 놀라웠으며 저로선 생각지도 못한 좋은 방법들로 풀어 주시곤 했습니다.

아이들과 뛰어 놀 때는 친형처럼 때론 친구처럼 안고 뒹굴기도 하며 아이들과의 벽을 허물곤 하셨죠. 그리고 방학이면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하시기도 하고 때론 고기 먹고 싶어 하는 애들을 위해 스님으로서 지켜야 할 위의보다 직접 고기를 구워 밥 위에 올려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부족한 저를 느꼈으며 이를 통해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기준을 세우게끔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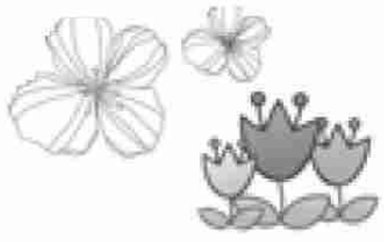
출가하여 세속의 일을 접는 대부분의 스님들과 달리 부모님의 사랑보다 할머니 혹은 고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난 것은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두윤 스님, 혜문 스님 그리고 치문반에서 저희와 같이 소임 시작한 심법 스님은 또 어떤 인연일까요?

이제 대교반으로서 이번 달 여름 캠프를 마지막으로 소임을 놓으시겠네요. 많이 섭섭하시죠? 부족하지만 저희 소임자들은 스님께서 그만 두시고 빈자리가 크지 않게 아이들에게 잘 할게요. 스님께서도 멋진 비구가 되셔서 지금처럼 부족한 중생을 위해 미소 한 번 더 나눠주실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한 가슴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스님께서 보여 주신 관심만큼이나 건강하게 각자의 삶의 그릇을 키울 거라 생각해 봅니다. 定慧社

꽃

무등無等 | 치문



계절이 지나가고 계절이 오고 있다. 겨울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고 꽃망울이 수줍게 오므려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던 봄 이곳 송광사에 들어와서 어느덧 한 철을 보내고 이젠 여름이 오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름다운 꽃을 자랑하던 나뭇가지들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있고 이제 곧 절정에 이르고 그 건강함을 자랑하리라.

나무는 제각기 계절에 따라 제 모습을 바꾸어 간다. 봄에는 찬란한 꽃을 자랑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으로 그리고 가을에는 고운 단풍으로 제 모습을 바꾸어 간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다음 봄을 기다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 일조량이 갖추어지면 꽃이 핀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목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아무리 적당한 온도와 습도 일조량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각목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나무에 꽃이 피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무에는 꽃을 피워낼 가능성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무는 이미 꽃을 숨겨 놓았던 것이다. 잎이 말라 떨어지던 가을에도 혹독한 추위의 겨울에도 나무는 그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시간에서 시간으로, 밤낮으로, 계절로 그리하여 가장 알맞은 시간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나무는 찬란한 꽃을 피워냈다.

다른 이들이 부족해 보이거나 이해 못할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모든 것이 꽉 막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찬란한 꽃을 숨겨 놓고 있다는 것을… 定慧社

출가의 인연

시묘是妙 | 치문

어느새 봄은 저만치 지나간 듯 하네요. 엊그제 만발하여 향내를 내뿜었던 가지각색의 꽃들은 바래지고 시들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안쓰럽게 합니다. 늦게나마 마지막 봄의 자취를 간직하고자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대는 관광객들의 모습 속에서 늦게나마 불법을 만나 출가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봄의 마지막 자락에서 활짝 핀 작약 꽃을 마주칠 때의 설렘처럼, 부처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의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으며, 친할머니의 독실한 신앙심은 가족 전체를 기독교 교인으로서 이끌어 주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모태신앙인 저는 가족의 분위기에 따라 일찍이 교회와의 인연을 가졌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족 구성원간의 화합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기에, 어느 누구도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에 충실하였고, 사춘기를 지나 조금씩 소홀하였으나, 집안 행사에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족 일원으로 돌아가 예배를 보며 교인임을 자각하곤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부모님과 가족들은 항상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길 당부하였기에 직장 내의 신앙 모임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갔고, 저의 세대의 편안한 직장인처럼 여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덕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고, 직장 생활에 만족하며, 스스로 행복한 사람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불현듯 찾아 온 허무한 감정들은 평범한 생활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생각에 큰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을 키워가던 직장에서 불현듯 뛰쳐나와 배낭 하나 둘러매고 무슨 인연인지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예상치 못한 2년간의 방랑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 재학중에 1년간 배낭여행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의 여행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였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떠나는 것이라, 마음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고, 인생에 있어 특별한 사건이자, 큰 이탈이었으며, 부모님께 많은 슬픔을 주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보았던 수많은 모습들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했던 감정들이 의미없는 사치스러운 생각임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울고 웃으면서, 누구나 가슴 속에 슬픔 하나씩은 품고 있음을 알게 되자 삶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 갔습니다.

여행 하던 곳이 인도, 네팔, 티벳 등 불교의 성지라 그러한 때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었으며, 수행자들의 청정한 모습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불서를 읽을 때면 답답하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며, 불교에 관한 관심을 깊어지게 하였습니다. 인연이 되어 알게 된 한 수행스님으로부터 출가하여 공부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씀과 권유에 당혹감보다는 담담했던 것은 지금 와 돌이켜 보면 정해진 길이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승복을 입은 출가자를 천신도 몸을 낮춰 우러러 본다」는 한 구절이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았고, 붉은 노을이 지는 룸비니 동산을 걸을 때 이유 없이 흐르던 눈물이 귀국 후 무작정 송광사로 출가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행자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문득 잠결에 일어나 바라본 내 모습에 낯설음을 느끼고, 밀려오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초심의 마음과 결심이 흔들려 좌절감이 생길 때면, 짧아진 머리를 만지며, 힘들고 어렵게 만난 불법의 인연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곤 합니다.

출가의 큰 뜻을 세울 때의 마음이 바라지 않도록 또한 이 길로 이끌게 해 준 모든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바르게 발걸음 디딜 수 있기를 부처님께 발원하며, 정신없이 바쁜 치문반의 일과를 오늘도 마무리 합니다. 定慧社

바람소리 한자락

새벽 단상

해운海雲 | 사집

밤늦은 시간까지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만 새벽 예불시 대웅전 앞뜰의 땅이 질펀하게 일어나 있다. 그리고 정오를 넘기기까지 몇 번의 가는 비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니만 잠깐 해가 쨍하고 남다가 다시 흐려졌다. 몇 차례의 이어지는 비로 개울물이 불어 씩씩하게 굽이쳐 흐르며 내는 소리가 가까운 듯 또는 먼 듯 단조로움을 띄고 있다. 개울물의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한다. 슬플 때는 애조 띈 가락으로, 기쁠 때는 경쾌한 리듬을 띠고 흐르며 선함 사람에게는 선하게, 방금 나쁜 짓을 하고 온 사람에게는 자기를 잡으러 온 발자국 소리로 들릴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가 다 마음이 이루어 낸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문 밖에서는 간혹 대책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 좌변에 하루 일당 어치도 안 되는 물건을 펴놓고 장사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노인을 바라 볼 때. 벌어 놓은 것은 없는데 집주인이 방을 비워 달라고 할 때. 역전에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 돈을 달라고 할 때. 도로를 건너는데 어느 할머니가 다짜고짜 다가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요즘 절에서는 돈을 찍어낸다 하던데 그 돈 좀 자기 좀 줄 수 없냐고 할 때. 그 밖에 부모와 자식 지간에 갈등, 부부 지간에 애정문제, 또는 건강문제 등 대책이 안서는 일이 현실 앞에 뚜렷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줄인다면 생로병사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속아 살아 왔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때가 종종 있곤 하였다. 뚜렷이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이것은 아닌데. 이것 말고 뭔가 따로 있을 법한데' 삶을 지배하며 흐르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흐름이 막연히 부정적이라는 느낌이 나를 출가하게 만든 것이라 여겨진다. 솔직히 말해 나는 잘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흔히 기본적인 생활 조건인 운전도 못하고, 컴퓨터도 할 줄 몰랐다. 뭐라 특별히 꼬집을 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단지 허무감에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오는 허무감이 또 싫었고, 그러면 또 술을 마시는 악순환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교였다. 집안의 기독교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으며, 다른 것은 노력해도 얻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는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공부가 순일하게 되어 가는 것 같다. 이것이 인연이라면 인연인 것이다. 치문반을 마치며 강사스님이 꼭 읽어야 할 책을 몇 권 선정해 줬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다 읽었다. 정화 스님의 유식을 읽어 들어갈 때 뭔가 마음속에 꺽여져 들어가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중관에 이르러서는 대하고 있는 이 현상세계에 대한 부정에, 통쾌함이랄까 당혹스러움에 전율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주요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능엄경과 화엄경은 행자 시절 때 한글로 된 번역서를 읽었고 한문도 쉬운 글을 읽으면서 석사가 되는 편이다. 대중 생활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독서라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이만 줄이겠다. 定慧社

그해 여름

심법尋法 | 치문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여름의 일이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텐트 벽에 두껍게 얼어붙어 있던 성에가 후드득거리며 나를 반겼다. 꽁꽁 얼어붙은 이중화 내피에 대충 발을 구겨 넣고 엉금엉금 텐트 밖으로 나와 보니 멀리 파미르 고원 쪽으로 파란 하늘이 내비쳤다. 날씨가 꽤 좋을 것 같았다. 물을 끓이기 위해 코펠에 눈을 퍼 담고 버너에 불을 붙이자 파란 불꽃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제야 나는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반드시 베이스캠프로 내려가야만 한다. 이번에 내려가지 못하면 내 발로 내려가지 못할 지도 모른다' 고 생각하니 마음이 초조해졌다. 봄에 다녀온 얄룽캉[1] 원정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곳 무즈타그아타[2] 등반을 위해 카쉬가르[3]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로부터 이미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내 마음은 갑작스레 찾아온 친구의 자살과 연이어 에베레스트에서 날아든 형들의 사고사 소식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몸마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식사를 하지 못한 지도 벌써 사흘째였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뜨거운 차 한 잔을 들이킨 뒤 힘겨운 하산을 시작했다.

캠프2에서 캠프1로 내려가는 길에는 거대한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서서 보니 아래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 무엇인가를 싸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서둘러 내려가 보니 중국인 등반가들이 동료의 시신을 침낭에 넣어 수송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낡은 피켈 한 자루만이 꽂혀 있었다. 그 장면 앞에 마주선 순간 왈칵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주위를 맴돌고만 있던 죽음이라는 놈이 갑자기 실체로 떠올라 마치 송곳처럼 내 마음을 후벼 파댔다. 어쩌면 나는 동료와 친구를 잃는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되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늘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며 눈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넋을 놓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만 오히려 오기가 치밀어 올라 하늘에다 대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결코 나는 죽음 따위에 뒷덜미를 잡히지는 않을 테다' 하고 악다구니를 쏟아내었다.

하지만 눈발은 점점 굵어지기만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서운 강풍까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 손조차 보이지 않는 화이트 아웃[4] 상태가 되었을 때 상식대로라면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었어야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크레바스[5]와 세락[6]지대를 통과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짓이었다. 하지만 바로 앞쪽에서는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힘겹게 동료의 시신을 운반하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앞장서서 눈 위로 길을 내 주기를 바랐다.

마치 장님처럼 눈보라 속을 더듬거리며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때로는 거대한 아이스 세락의 가장자리로 나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시커먼 입을 벌리고 선 크레바스 코앞에서 멈춰 서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언뜻언뜻 보이던 표식 기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순간이었다. 한 치의 틈도 없이 눈으로만 가득 차 있던 하늘 사이로 바늘구멍 만하게 햇살이 내비치는가 싶더니 잠깐 사이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말끔히 걷혀버렸다. 눈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산들의 바다가 파도를 치고 있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빛나는 광경 앞에서 문득 '나와 네가 둘이 아니며 삶과 죽음 또한 둘이 아니며 나와 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둘이 아니다' 라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산을 내려온 뒤로도 그 때의 그 느낌을 다시 찾아 해답을 구하고자 했고 그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결국에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 내가 찾고자 하던 답이 있음을 깨닫고 출가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때의 그 지독했던 화이트 아웃과도 같은 무명 속에서 고통으로 가득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눈보라를 걷어내 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때때로 번뇌가 치솟아 길을 헤맬 때면 나는 가만히 4년 전 여름을 생각해본다. K2의 북쪽 베이스캠프를 향해가는 카라코람 하이웨이[7]. 그 황량한 길을 가다보면 눈 덮인 '산들의 아버지 – 무즈타그아타' 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곳에서 누린 처절했던 여름이 그립기만 하다. 定慧社

---

1) 얄룽캉(캄첸중가 산, Kanchenjunga, 8,586)은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위치한 세계 제3봉이다. 8,450m가 넘는 네 개의 봉우리를 포함하여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하여 '다섯 개의 눈의 보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중국 신강 위구르 지구에 위치한 파미르 고원의 대표적인 산(7,546m) '눈 산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3) 중국 신강 웨이우얼 자치구에 위치한 도시. 1999년의 조사에서 인구는 20만5,056명이다.
4) 심한 눈보라와 눈의 난반사로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보이는 현상. 이 상태가 되면 눈 표면과 공간과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행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5) 빙하의 표면에 생긴 깊은 균열. 빙하가 유동流動할 때 암반의 경사 변환부, 굴곡부, 곡벽谷壁근처 따위에 생긴다.
6) 급경사의 빙하가 완경사로 변하는 지점에서 빙하의 표면이 톱니모양으로 울퉁불퉁한 부분을 말한다. 속도와 방향이 고르지 않아 생긴 균열인 크레바스가 교차한 부분에 생긴다.
7) 중국 신강 웨이우얼[新疆維吾爾] 자치구와 카슈미르 지방을 연결하는 고개로, 서쪽으로는 힌두쿠시산맥에 이어지며 예로부터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해주던 교역로이다. 1966년 중국과 파키스탄이 양국 간의 교역로로 활용하고자 건설하였으며, 총길이 1,200km에 왕복 2차선으로 1980년 완공되었다.

詩가 있는 풍경

봄바람 부는 날

종관宗觀 | 대교

꽃잎이 비가 되어 내릴 때

두견새의 소리가 높구나.

님을 부르는 노래

님을 그리는 소리는

날리는 꽃잎을 따라 바람이 되고

님을 보고픈 마음은

바람을 따라 구름으로 높아간다.

자화상

도웅道雄 | 사집

1

파리도 살았다 설탕물 핥고 파리채 피하며
어디에라도 우선 달라붙고 볼일이다 뭣도 모르고
한번은 거울에 붙었다 이런! 난 파리군.
이번만 하고 그만 하련다 파리놀이
그래도 재미는 있다.

2

섬에 갔다 섬에 산이 있다
산에 오르니 나무가 있다 나뭇가지 꺾인 지 오래되어 아예 땅에 누웠다
그래도 제법 꽃을 피웠다 무슨 꽃이냐고 물으니 복사 꽃 이란다
눈물이 난다.

고개 돌린 해바라기

창연蒼然 | 치문

고요... 어둠에서
동서남북으로 태양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적막... 어둠에서
그대 오직 거대하게 빛나는 태양만을 위하여

혼돈... 어둠에서
수만 번도 넘게 고개를 쳐올려 두리번거렸을 때

고요... 적막... 혼돈의 어둠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저 태양을 드디어 마주했을 때

허무... 아침에서
아, 그대여 저 거대하게 빛나는 태양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었구나.

학인기고

大乘起信論의 一心二門三大에 나타난 緣起的 不二

도법道法 | 사교

講院의 經班에서 보는 諸經중에서 起信論은 유일하게 論書이다. 보살이 저술한 論이지만 부처님 말씀인 經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大乘經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起信論은 大乘經典중에서도 하나의 經典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華嚴經』『楞嚴經』『楞伽經』『法華經』『圓覺經』『金剛經』『勝鬘經』『如來藏經』『涅槃經』『金光明經』『大乘同性經』『大集經』등 大乘經典 100여부를 主從으로 해서 著述한 것으로 起信論 原文에서는 아래와 같이 言及하고 있다.

"如來의 廣大하고 깊은 法의 限量없는 뜻을 總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起信論을 說해야 한다. 이 論의 뜻이 이러하여 펼쳐 보면 無量無遍한 뜻으로 宗旨를 삼고 合해 보면 二門一心의 法으로 要體를 삼고 있다. 二門 안에 萬가지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어지럽지 아니하며 限量없는 뜻이 一心과 같아서 混融되어 있으니 이러므로 開合이 自在하며 立破가 걸림 없어서 펼쳐도 번잡하지 않고 合하여도 狹窄(협착)하지 않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깨뜨려도 잃음이 없으니 馬鳴의 뛰어난 術法이며 起信論의 宗體이다."

法藏스님의 起信論의 性格은 華嚴經이라는 한 宗派의 立場에서 起信論을 바라보았지만, 元曉스님의 경우는 한 宗派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佛敎의 全般的인 모든 思想을 두루 圓融回通해서 起信論의 要體를 밝히고 있다. 특히 中觀思想과 唯識思想의 圓融이 눈에 띈다. 元曉스님이 起信論에서 一心二門에 配對해서 二門에 配對한 槪念으로 無明과 眞如, 體와 用, 本覺과 不覺, 不空과 空, 染法과 淨法, 細와 鹿, 如來藏과 阿梨耶識 등 많은 相對的인 槪念들이 나오며 그것들이 서로 二門과 같이 緣起的으로 不二임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起信論 전체에 걸쳐서 言及되고 있는 內容이며 이러한 緣起的 不二는 禪에서 특히 重要시 하고 있다.

衆生이 곧 부처요, 煩惱가 곧 菩提요. 生死가 그대로 涅槃이며, 幻花가 法身이라는 禪門의 주장과도 一脈相通하며 이는 大乘思想의 核心이며 精髓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大乘思想의 核心을 起信論은 二門에 依據해 體相用이라는 틀을 통해서 二門이 雖二而不二임을 體係的이고 論理的으로 精然하게 立證해 보이고 있다. 어떤 宗敎이던 간에 宗敎는 현실생활의 苦에서 또는 죽음이라는 限界狀況에서의 救援을 目標로 하고 있는 점은 大同小異한 것인데 大乘佛敎의 論書인 起信論에서의 경우 二門의 不二는 理想과 現實이 둘이 아님을 의미하며 이것은 起信論이 상당히 現實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起信論 전체에서 解釋分의 顯示正義중의 生滅門이 차지하는 비중이 全體의 절반이 넘는 것은 起信論이 현실에 토대를 두고 理想을 追求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起信論

의 이와 같은 구조는 元曉스님의 삶 자체가 起信論疏와 別記에 이미 反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小乘阿羅漢은 滅盡定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몸을 받지 않으므로 生滅하는 娑婆世界인 生滅門과의 緣起的 관계가 斷絕된 반면에 大乘菩薩, 즉 Bodhi sattva 覺有情은 語原이 뜻하는 그대로 覺體이면서 有情이기도 하므로 眞如門과 生滅門의 緣起的 不二의 存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菩薩의 의미는 眞如門에서는 用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生滅門에서는 體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大乘思想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菩薩道라 할 수 있으며 보살도는 衆生과 부처가 둘이 아닌 同體大悲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菩薩道는 바로 緣起 그 自體이며 衆生이 無明의 病苦에 시달리는 한 菩薩도 같이 病苦에 시달리며 衆生이 다함이 없는 한 菩薩의 願力도 끝이 없으리라는 『유마경』의 내용과도 一致한다. 大乘菩薩로서 끝없는 菩薩萬行을 具現한 元曉의 삶 그 자체의 記錄이 바로 대승기신론의 內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起信論의 內容의 核心은 다름 아닌 一心, 즉 衆生心에 依據한 眞如門과 生滅門의 緣起的不二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緣起的不二에 대한 언급은 論의 곳곳에서 非一非異, 不相離, 不二, 不同非不同, 雖二而不二 등 다양한 表現으로 나타난다. 사실 緣起的不二는 言說로써나 意識으로써 表現할 수 없는 것으로서 中觀의 有, 無, 亦有亦無, 非有非無의 四不中道로써 이것은 離言眞如로써 言語道斷, 心行處滅의 境地이다. 起信論에서 眞如法界는 一心이며 衆生心이라고 언급하는데 이 말은 衆生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므로 眞如門은 一心과 不二며 生滅門도 一心과 不二며, 고로 眞如門과 生滅門도 不二이다. 같은 내용으로 楞伽經에서도 寂滅 = 一心 = 如來藏의 三者가 同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寂滅 = 一心은 眞如門이고 一心 = 如來藏은 生滅門이므로 고로 眞如門과 生滅門도 不二하다.

一心의 體가 眞如門으로 나타나며 현실세계에선 一心의 相用이 生滅門으로 나타난다. 復言하면 一心의 空의 측면은 眞如門으로 一心의 不空의 측면은 生滅門으로 현실에 顯現하게 된다. 眞如門과 生滅門 各各은 一心의 또 다른 表現일뿐 雖二而不二며 이것은 바로 緣起를 뜻하며 中道이기도 하며 二門간에는 自性을 지키지 않으므로 緣起的不二의 相關的 關係이므로 一心이라 할 수 있으며 二門은 空이라고 할 수도 있다.

二門의 不二는 起信論 本文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二門이 모두 各各 一切의 法을 總攝하고 있으며, 二門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二門이 各各 總攝하는 뜻을 解釋한 것이니 이는 眞如門은 染淨의 通相이며 通相 밖에 별다른 染淨이 없기 때문에 染淨의 모든 法을 總攝할 수 있음과 生滅門은 각기 染淨의 모든 法을 總攝할 수 있음과 生滅門은 각기 染淨을 나타내어 染淨의 法이 모두 포함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一切의 모든 法을 總攝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通相과 別相이 다르긴 하나 다같이 否定할 것이 없기 때문에 二門이 서로 여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比喩로써 미진(진흙)을 通相에 비유하고 질그릇을 別相에 비유하여, 진흙 밖에 별도의 질그릇이 있을 수 없고, 질그릇이 모두 진흙에 包攝되는 것처럼 眞如門과 生滅門의 關係도 위와 다르지 않다. 二門이 不相離의 관계에 있음을 元曉 스님은 5가지 질문의 답변에 의해 立證하고 있다. 論의 原文을 보면, 一問, 若此二門各攝理事, 何

故眞如門 中但宗摩訶衍體, 生滅門中通示自體相用. 묻기를, 만약 이 두문이 각기 理와 事를 包括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眞如門 중에서는 다만 대승의 體만 보이고 생멸문 중에서는 통틀어 自體 · 相 · 用을 다 보이는가?

一答, 攝義示義異, 何者. 眞如門是泯相以顯理, 泯相不除, 故得攝相, 泯相不存故非示相, 生滅門者攬理以成事, 攬理不壞得攝理 攬理不泯故亦示體, 依此義故 且說不同 通而論之二義亦齊, 是故眞如門中亦應 宗於事相 略故不說耳.

답하기를 "包括의 뜻과 보이는 뜻이 다르니 어떻게 다른가? 진여문은 相을 없앰으로서 理를 나타냈으니 相을 없앴으나 아주 제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相을 包括할 수 있는 것이요, 相을 없애어서 두지 않기 때문에 相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生滅門에서는 理를 잡고서 事를 이루었으니 理를 잡아서 破壞하지 않으므로 理를 包括할 수 있는 것이요, 理를 잡아서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體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명한 것이 같지는 않지만 통틀어 論하자면 두 뜻(包括의 뜻과 보이는 뜻)이 또한 같다.

그러므로 진여문 중에도 또한 事相을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이나 省略하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다" 原文에서 "진여문은 相을 없앰으로서 理를 나타냈으니." 란 말은 비유컨대 투명한 마니주에 비치는 영상을 없앰으로써 理인 투명한 마니주(體에 해당)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진여문은 體가 중시되므로 相을 버리는 모습으로 그 이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相을 없앴으나 아주 제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相을 包括할 수 있는 것이요."란 말은 마니주에 나타나는 영상을 나타나지 않게 하였으나 언제나 마니주 앞에 두기만 하면 영상이 마니주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여문의 體는 大乘의 體로써 영상이 비치지 않는 투명한 마니주를 의미한다. 原文의 "생멸문에서는 理를 잡고서 事를 이루었으니 理를 잡아서 破壞하지 않으므로 理를 包括할 수 있는 것이요."란 말은 투명한 마니주(理)에 비치는 영상(事)은 어떠한 영상(事)이든지 마니주(理)를 包括한다는 뜻이며 "理를 잡아서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體를 보이는 것이다."란 말은 투명한 마니주(理)가 없으면 영상이 비쳐진 마니주(自體)도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이다. 생멸문의 體는 진여문의 體와 달리 因緣生滅相을 따르는 生滅門내의 自體를 의미한다. 이 部分이 바로 起信論에서 元曉스님과 法藏스님의 見解가 가장 두드러지게

差異나는 곳으로서 元曉스님은 眞如門의 體와 生滅門의 體가 相과 用의 緣起的 측면에서 作用상에 差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法藏스님의 경우에는 眞如門의 體와 生滅門의 體가 똑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 眞理의 當體가 眞如門과 生滅門에서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法藏스님의 見解는 옳고 元曉스님의 見解는 옳지 않다는 말인가?

元曉스님이 그것을 몰랐을리 만무하다. 그런데 왜 진여문은 大乘의 體라 했고 生滅門엔 生滅門 내의 自體로써 相과 用을 따른다 했는가? 진여문의 體는 相을 버리는 空의 측면이 强한 體요, 생멸문의 體는 相을 취하고 相을 따르는 不空의 측면이 强한 體로써 二門의 體는 緣起的으로 不二의 體이다. 法藏 스님의 경우엔 단지 결과적으로 同一하다는 언급만 했지만 元曉스님은 심도 있게 立體的으로 照明하여 二門간의 體를 緣起的 相關性을 제시하면서 언급하고 있다.

總論해 보면 二門의 包括의 뜻은 같고 보이는 뜻은 다르다 했지만 사실상 眞如門 중에도 相, 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存在하므로 二門간의 보이는 뜻도 包括의 뜻과 다름없이 같으므로 非一非異에서 非異에 해당된다.

二問, 二門不同, 其義已見, 未知二門所攝理事, 亦有隨門差別義不.

묻기를 두문이 같지 아니한 뜻은 이미 알았지만 두 문이 包括한 理 · 事는 또한 眞如門이나 生滅門에 따라 差別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答, 隨門分別 亦有不同 何者. 眞如門中所攝事法 是分別性. 以說諸法不生不滅 本來 寂靜 但依妄念而有差別故. 心生滅門所說事法 是依他性 以說諸法因緣和合有生滅故. 然此二性雖復非一而亦不異."

답하기를 "두 門에 따라 分別함에 있어서도 역시 같지 않음이 있으니 어떤 것인가? 진여문 중에서 包括한 事法은 分別性이니 모든 法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여 본래 寂靜하지만 단지 妄念에 의하여 差別이 있다고 說明하기 때문이며 心生滅門에서 說明한 事法은 依他性이니 모든 法이 因緣으로 和合하여 生滅이 있음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分別性과 依他性이 다시 같지는 않지만 다르지도 않다"

二門의 事法에서 진여문 中의 分別性은 因緣으로 나눈 것은 自性, 他姓 및 共性을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依他性은 分別性과 다르지 않으며 生滅門중의 依他性은 因緣으로 생긴 生滅하는 모든 法이 妄念을 여의고서 差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分別性이 依他性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說明할 수 있다.

攝論에서는 三性인 分別性과 依他性과 圓成實性이 서로 依止하는 것을 說明하여 다르지도 않으며 다르지 않지도 아니하다고 하였으며 이 뜻을 잘 理解한다면 百家의 諍論을 和合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答. 二門所攝理不同者. 眞如門中所說理者 雖曰眞如亦不可得而亦非無
生滅門內所攝理者. 雖復理體離生滅相而亦不守常住之性 隨無明緣流轉生死
답하길, "二門이 包括한 理가 같지 않다는 것은 진여문 중에 말한 理는 眞如라고 는 하나 또한 그 실체

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生滅門내에 包括한 理가 같지 않다는 것은 진여문 중에 말한 理는 眞如라고는 하나 또한 그 실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生滅門 내에 包括한 理는 다시 理의 體가 生滅相을 떠났지만 常主하는 性品을 지키지 않고 無明의 緣을 따라 生死에 流轉하는 것이다"

二門의 理法에서는 生滅을 떠났지만 常主性 또한 얻을 수 없으며 緣을 따른다고는 했으나 항상 不動하며 生滅相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진여문 中에서는 다만 眞如니 實際니 하는 임시로 세운 이름을 破壞하지 않으면서 實相을 말하며 實際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法을 建立한다고 말한다. 즉, 말하자면 相을 버리는 모습으로 體인 그 理를 드러낸다. 生滅門中에서는 自性淸淨心이 無明의 바람에 움직이므로 물들지 않았지만 물들었으며 물들었지만 물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自體가 相、用을 따르지만 自體의 성품이 空하므로 萬事를 成事하지만 體인 自性淸淨心은 물들지 않는다.

三問, 眞如門中說唯空義 生滅門內說不空義 爲不如是耶

묻기를, 진여문 中에서는 오직 空의 뜻만 말하고 생멸문 내에서는 不空의 뜻을 설하였으니 이와 같지 아니한가?

答, 一往相配 不無是義 故上立義分 眞如相中但說能示摩訶衍體.

生滅門中亦說顯示大乘相用.

就實而言 則不如是 故下論文二門皆說不空義.

답하길, "대충 서로 配對해 본다면 이러한 뜻이 없지는 않다. 고로 위의 立義分의 眞如相 중에서는 다만 大乘의 體를 잘 나타낸다고 말했고, 生滅門 중에서는 또한 大乘의 相、用을 나타낸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말하자면 이와 같지 않으니 고로 아래 論의 글에서는 二門이 모두 不空의 뜻을 說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眞如門 내에서도 相、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存在하며 生滅門 내에서도 自體가 存在하므로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二門이 서로 다르지 않다.

四問. 若生滅門內二義俱有者 其不空義可有隨緣作生滅義 空義是無 何有隨緣而作有義.

묻기를, "만약에 생멸문 내에 空, 不空의 두 가지 뜻이 모두 있는 것이라면 不空의 뜻은 緣을 따라 生滅을 짓는 뜻이 있지마는 空의 뜻은 無이니 어떻게 緣을 따라 有를 짓는 뜻이 있겠는가?"

答. 二義是一 不可說異. 而約空義亦得作有 何者. 若空定是空 應不能作有而是空亦空故得作有 然此空空亦有二義 一者有法性空 是空亦空 有之與空皆不可得 如是空空有眞如門 二者猶如有無有性故得爲空 示名曰空 如是空無空性 故得作有 是名空空在生滅門

답하길, "두 가지 뜻이 같아서 다르다고 말할 수 없으니 空의 뜻에 의해서도 有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왜인가? 만일 空이 반드시 空일 뿐이라면 마땅히 有를 지을 수 없지만 이 空도 반드시 空일 뿐이라면 마땅

히 有를 지을 수 없지만 이 空도 또한 空이므로 有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空이 空하다는 것에도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法性의 空이 있으니 이 空도 또한 空하여 有와 空 모두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空이 空한 것은 眞如門에 있다. 둘째는 마치 有가 有의 自性이 없기 때문에 空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이를 이름하여 空이라 하는 것이며 이러한 空은 空性이 없기 때문에 有를 지을 수 있으니 이를 空空이라 이름 하는 것이요, 이러한 空空은 生滅門에 있다"

二門에서 眞如門의 空은 一切法을 包括하기는 하지만 生義는 없다. 허나 生滅門의 空은 包括의 뜻과 함께 生義도 가지고 있으므로 二門의 空義가 서로 같지 않다.

五問, 理實而言 爲絕爲不絕 若不絕言者 正體離言 卽違於理. 若實絕言 後智帶言 卽倒於理 又若不絕則初段論文斯爲漫語. 若實絕言則後段論文徒爲虛設

묻기를, "理는 실제로 말한다면 말을 끊은 것인가 끊지 않은 것인가? 만약 말을 끊지 않은 것이라면 正體智는 말을 끊은 것이므로 곧 理에 어긋나며 만약 실로 말을 끊은 것이라면 後得智는 말을 지니므로 곧 理에 거스르는 것이다.

또 만약 말을 끊지 않은 것이라면 起信論 初段의 글이 바로 부질없는 말이 되며, 만약 실로 말을 끊은 것이라면 起信論 後段의 글이 한갓 헛된 說明이 될 것이다"

答. 是故當知 理非絕言 非不絕言. 以是義故 理亦絕言 亦不言絕 是則彼難無所不當.

답하길, "이런 고로 理는 말을 끊은 것이 아니며, 끊지 않은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런 뜻에 의하므로 理는 말을 끊기도 하며 말을 끊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 이렇다면 저 질문이 合當하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다"

理가 말을 끊지 않은 것이라면 正體智(말을 끊은 지혜)와 起信論 後段의 글(離言眞如)에 어긋난다. 理가 만약 말을 끊은 것이라면 後得智(말에 의지한 지혜)와 起信論初段의 글(依言眞如)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理는 말을 끊은 것도 아니고 끊지 않은 것도 아니다. 고로 말을 끊기도 하며 끊지 않기도 하므로 自在하다. 二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自在하다.

以上의 5가지 問答에 의해서 元曉스님은 二門 간의 非一非異를 밝혀서 5가지 질문에 대한 의심을 打破해 보이고 있다. 한편 生滅門내에서도 阿梨耶識이 本覺인 不生不滅心과 不覺인 生滅心으로 和合되어 있는데 本覺과 不覺이 不二인 것은 始覺이 緣起的不二로서 存在함으로 인해서 本覺과 不覺도 緣起的不二관계에 놓이게 된다. 도식해 보면 아래와 같다.

始覺의 4가지 모습인 究竟覺, 隨分覺, 相似覺, 凡夫覺이 本覺의 用의 측면이라면, 究竟覺은 不覺의 體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계는 本覺은 始覺과 不二하고, 始覺은 不覺과 不二하는 고로 本覺은 不覺과도 不二한 緣起性이 成立된다.

다음은 染法과 淨法의 不二를 살펴보면 染法인 流轉門과 淨法인 還滅門의 因은 無明과 苦이다. 不覺인 三細六鹿의 因은 無明(眞如의 또 다른 모습)이고 果는 苦이다. 마치 本覺과 不覺의 관계에서 始覺의 因은 苦에 대한 自覺이고 果는 究竟覺인 것과 구조가 同一하다. 결국 流轉門의 染法과 還滅門의 淨法도 緣起的不二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緣起的不二는 體와 用, 空과 不空, 細와 鹿, 如來藏과 阿梨耶識등에서도 똑같이 適用된다. 하지만 이러한 緣起的不二에서 특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體相用의 틀에서 그 초점을 찾을 수 있다. 起信論의 立義分에서는 體相用 三大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本文인 解釋分에 들어가면 體와 用은 언급이 되고 있지만 相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起信論의 구조는 空과 不空, 細와 鹿, 染法과 淨法 등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體相用이란 관점의 틀은 現實의 現象界에선 體와 用으로 나타나므로 相의 모습은 體와 用에 잠재되어서 나타나는데 眞如門에서는 用으로 隨緣으로 나타나며 生滅門에선 體로써 體空에 해당케 된다. 마치 始覺이 本覺과 不覺에서 緣起的不二로 존재하듯이 相도 眞如門과 生滅門에서 緣起的不二로써 存在한다.

總論해 보면, 大總相法門인 一心, 즉 衆生心은 一이면서 二이고, 二이면서 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體相用의 삼각형의 구조는 緣起的不二의 구조를 의미하며 起信論의 모든 總相과 別相을 內包하고 있다. 一心은 眞如法界이지만 衆生心이기도 하므로 부처와 衆生 모두를 뜻하므로 二門의 구조이며 二門은 또한 非一非異의 연기 관계이므로 三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三안에는 二와 一이 모두 연기적으로 內包되어 있다. 三이면서 二이고 一이기도 하다. 衆生心이 一心이며 眞如라는 起信論의 思想은 不信과 無明으로 얼룩진 生滅의 娑婆世界에 모든 衆生들이 바로 부처라는 肯定的이고 희망에 찬 삶을 增大시켜 衆生들로 하여금 밝고 활기차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데바닷타와 같은 惡人도 부처님께서는 授記를 주시며 부처가 된다고 法華經에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힘들고 나쁜 상황이라도 그 자체는 無常한 空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自覺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삶에서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一心을 잃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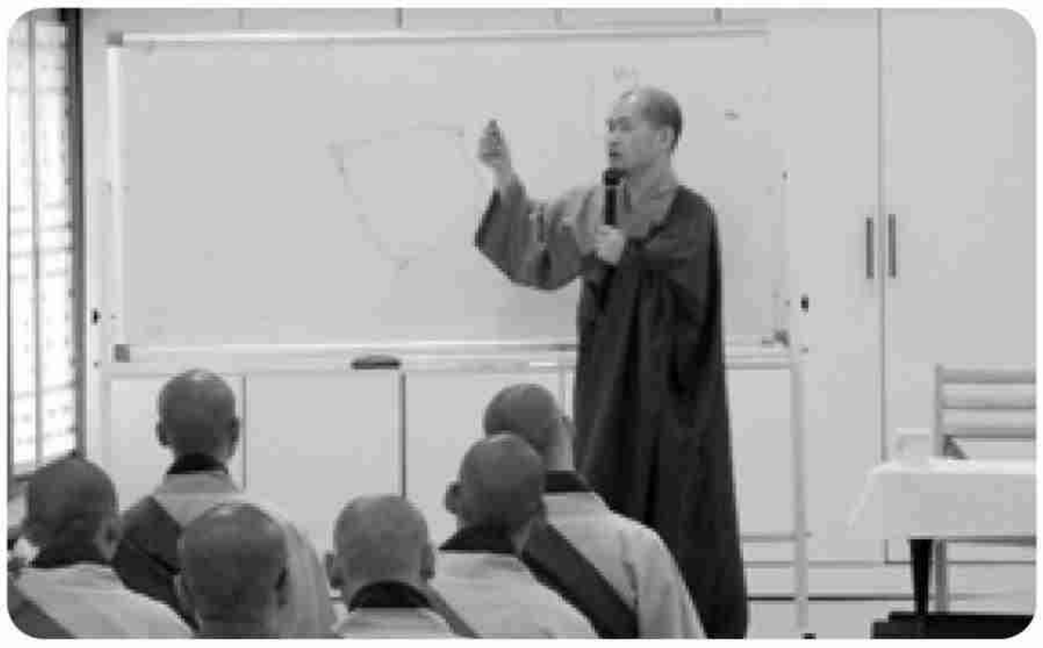
1,400년 전에 大乘菩薩의 삶을 사셨던 元曉스님처럼 生滅의 娑婆世界에서 누추한 거리를 배회하며 누더기 옷에 거친 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지라도 無碍박을 두드리고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大自由人으로서 生死의 그물 속에서도 生死에 걸리지 않고 貪嗔痴로 가득한 오염의 사바세계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한 송이 연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定慧社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실

4월 15일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 참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여 결성된 범종교인 모임인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을 맞이하는 법회가 담양에서 열려 학인 스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4월 21일 대정 스님 특강

'동남아시아와 대만의 불교'를 주제로 한 대정 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생생한 남방 불교 체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월 26일 소방훈련

일 년에 한 번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 올해도 변함없이 순천소방서에서 화재발생시 응급조치에 대해 교육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광사에 화재는 없다. 화재야 물렀거라!

5월 19일 하안거 결제 포살 및 방장스님 법문

'다 놓아버리고 오직 정진하라' 무자년 하안거 결제를 맞아 범망경 포살과 방장 스님의 법문이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6월 3일 대종 교체

30년 만에 종고루 대종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제 은은하게 울리는 새 대종과 함께 예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 일각선사 추모제

전 방장이셨던 일각 스님의 재를 모셨습니다. 올해는 더욱이 스님의 추모비를 제막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6월 12 ~ 15일 발 울력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막기 위하여 강원스님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정혜사 큰방 주위 및 도량내의 많은 곳에 발을 달았습니다.

6월 23일 매실열매 울력

한여름 결제 기간 동안 잃기 쉬운 입맛을 돋우어 줄, 매실 열매를 따는 울력이 있었습니다. 나무 가지를 털고, 떨어진 열매를 줍는 학인스님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6월 26일 감자울력

여름이 무럭무럭 익어가듯 막 캐낸 감자알도 굵직합니다. 대중스님들의 분주한 손길로 어느새 감자밭에 감자 줄기만 무성합니다.

7월 4일 서울광장 시국법회 참석

정부의 독선에 항의하는 종교인 시국집회 참여의 일환으로 학인 스님들이 서울 광장에서 열린 시국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 7일 반결제 원족산행

의상대사께서 불법 전파의 도량으로 중수하신 화엄사와 지리산의 3대 봉우리 중의 하나인 노고단으로 하안거 원족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 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성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후원자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im220@hanmail.net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1구좌 일만원

우체국 온라인 : 503490-01-001097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 810-02-120594 예금주 : 박채균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혜문스님 061)755-5302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출판물로써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37호의 발간과 함께 내부 사정상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혜사」 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안내 : 송광사 강원 편집실 061)755-5302
우체국 온라인 : 500660-01-001029 예금주(송광사 정혜사)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운주사, 강원 후원회, 강원 동문회, 광양보살님, 경주보살님, 무각사, 광명사 활안스님, 광원암 현봉스님, 통해사 주지스님, 법련스님, 광주사암연합회, 충무스님, 길상사, 일각스님 문도회, 강화 전등사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부산 관음사, 학감스님, 자용스님, 능인 강사스님 반연, 태융 스님, 지성스님, 혜소스님, 원주스님, 선원 영선스님. 낙산사 정념스님, 송학사 자비회, 도찬스님, 선원 여일스님, 한솔농원, 개천사, 정안사, 순천 강원후원회, 정목스님 반연, 봉정사 주지스님, 원오스님, 학감스님 반연, 익명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증심사, 만연사, 능가사, 만경사, 선원 보각스님, 선원 보원스님, 선원 해청스님, 본행스님, 종안스님, 강병균, 강석창, 김갑숙, 김근주, 김선아, 김영자, 김현정, 오인완, 류세형, 연지향, 이쌍례, 정경자, 정성태, 정순명, 허재인, 홍지영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 출가하신 스님들께서 퇴전치 아니하고 올곧게 수행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 편집일을 하면서 문자의 좋은 점은 활용하되 문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기회가 됐습니다.

● 도와주신 스님들,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큰 일 없이 편집이 끝나게 되어 기쁩니다.

● 도반들이 쓴 글을 보면서 대중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삶에 대한 그들의 고민과 진지함을 느끼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

무자년 하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이 공부는 유심으로도 안 되고 또한 무심으로도 안 된다.
한 화살에 돌호랑이를 쏘아서 붉은 피를 보아야만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방장스님 법어 中 –

약사라 이름뛰고 十二大願세웠으라

四大로 난 병이면 나수어 주시련만

마음속 三毒病이라 아시고도 모르신 가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